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돈황학개론 II

<敦煌學概論 II>-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科

姜 宙 希

2012年 8月

돈황학개론 II
<敦煌學概論 II>-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岷 宣

姜 宙 希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姜宙希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2年 8月

목 차

제1장 돈황 예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1
제2장 돈황 권자卷子의 연구 방법	16
1. 권자의 양	16
2. 권자의 분류	17
3. 권자의 형태	17
4. 권자의 내부 양식	19
5. 서체	20
6. 권자의 부호	21
7. 교감 방법	22
8. 제함	24
9. 권자의 기록 시기	26
10. 양면권자와 단면권자	27
11. 돈황 경전의 일부 부록	28
12. 다수의 특수 상황	31
부록 : 돈황 - 위대한 문화의 보고	46
一 돈황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46
二 돈황학	52
(一) 막고굴 경전 권자의 발견	52
(二) 경전 권자의 약탈과 청淸정부의 권자 수합	54
(三) 돈황 한간漢簡의 발견	62

제1장 돈황 예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선 돈황 예술과 문화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 사업에 기여하기 위함이 저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최초의 예술품은 상대商代의 것으로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은허에서 여러 개의 조각상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 짧은 옷을 입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서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오늘날의 북방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이 조각상은 중국 최초의 인물 조각상 중 하나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비취라 부르는 경석(硬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밖에도 비취로 조각된 것이 있는데, 땅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그 얼굴이 원시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물들을 통해 은殷대에 이미 고대인의 모습을 본뜬 예술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옥으로 된 다른 조각품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용이라든지 호랑이와 같은 조각품들이 은허에서 발굴된 것 중 제일 많습니다. 물론 매미라든지 짐승들을 조각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회화나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매미는 아마도 고대인이 사후에 입안에 넣었던 물건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옥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옥을 만드는 기술자들도 많았을 테고, 대규모의 옥 공예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다보면 옥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글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왕(紂王)은 옥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은 채 불에 타 죽었고, 무왕(武王)이 그의 궁전으로 쳐들어갔을 때 조각된 옥석 몇 만 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의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옥 조각품들은 짐승, 곤충, 물고기 이외의 것도 모두 사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대다수가 고대 석기 시대의 것으로, 원시 인류가 사용하던 석기를 모방하여 조각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몸에 지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민간 풍습에서 예법으로 전해진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 역사에서는 이처럼 민간 풍속이 예법으로 변하고, 예법이 민간 풍속으로 서로 교차하며 변화 발전하였습

니다. 그럼 왜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옥을 중요시했을까요? 그 주된 원인은 당시의 예술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곤충이나 호랑이, 새의 모습을 조각해서 예술로서 감상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당시 사람들은 옥으로 도끼, 정鑿, 송곳과 같은 도구를 조각해서 용맹의 상징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옥으로 패를 만들어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장신구 중에는 하늘이나 땅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머리 모양이나 기타 신체 부위를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周대에 들어서면서 패방佩芳, 패용佩用, 패덕佩德과 같은 용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방이란 무엇일까요? 위쪽에는 옥 장식이 있고 아래쪽에는 향낭을 묶은 것을 패방이라 합니다. 그럼 패용은 무엇일까요?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옥으로 만든 손가락 보호대를 말합니다. 활시위를 당기면 그 탄력으로 인해 손이 튕겨나가면서 다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 옥으로 판을 만들었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패덕이란 용어는 옥을 지님으로써 자신이 덕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을 차고 다니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걸을 때 함부로 뛸 수 없어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매우 절도 있게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지요. 신하가 군주를 알현할 때에도 규정에 따라 옥패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볼 때 대신들이 손에 홀笏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 와서는 그 홀을 상아로 만들었지만, 상고시대에는 옥으로 만든 홀을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알현하거나 부모를 문안할 때 여쭙 내용을 그 홀 위에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옥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고, 이러한 것들은 춘추전국 시대 이후 예법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각자의 작위에 따라 각기 다른 옥 장식을 착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자의 면류관 위에는 열 두 개의 술이 달려 있었는데 그 술은 옥주玉珠로 장식했습니다. 대부는 대부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각자의 신분에 맞는 옥 장식이 있었으며, 아이들도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어떤 옥패를 착용하는가가 하나의 중요한 예법이었습니다. 황제가 황후를 책봉할 때 옥 위에 글을 새긴 옥간玉簡을 사용했으며, 각 지역의 제후들이 동맹을 맺고 맹세한 내용

을 적은 재서載書도 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낸 옥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말殷末에서 주초周初에 이르는 시기에 새로운 예술품이 생겨났는데 바로 종鐘, 술甗과 같은 청동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심지어 목욕할 때 쓰던 욕조도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물건을 담는 접시도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동기 유물 위에 새겨진 무늬 또한 고대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하는 학자는 중국 내에서는 드문 편이지만, 오히려 구미 쪽에서는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중국에서 청동기에 대해 연구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파리에 갈 기회가 있어서 중국 청동기를 소장하고 있는 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전시실에 중국 청동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 벽에 설명서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 설명서를 읽고 난 후 느낀 바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청동기의 합금 성분을 아주 자세히 적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청동기 위의 무늬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청동기 하나에도 연구할 게 많구나 하는 점에 매우 놀랐으며, 동시에 이 청동기가 우리 중국 문화 역사에 있어서 귀중한 보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청동기에 대한 설명들을 옮겨 적어 귀국한 다음, 그것을 청동기를 연구하는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들도 무척 놀랐습니다. 이렇듯 청동기 위에 새겨진 무늬에도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나,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예로 우리 연배 중에 청동기 연구로 유명한 용경容庚선생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위의 많은 무늬들은 일종의 의식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민간의 풍속과 생활 습관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 밖에 고대 문헌에 나오는 굴원屈原의 「천문天問」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왕일王逸은 「천문天問」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당시의 그림들로 벽에 그려져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그림들은 오늘날의 벽화에 해당하며, 돈황의 막고굴莫高窟 벽화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문天問」에 나오는 그림들은 하늘, 땅, 귀신, 인간에서부터 풀, 나무, 동물, 곤충, 물고기에 이르기까

지 그 소재가 광범위하며 중국 고대 예술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땅, 인간과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러한 「천문天問」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고 모방하여 천문도天問圖 같은 것을 그렸습니다. 송宋대 이후 천문도를 그리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들이 천문도를 제대로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두고, 정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들과 벽화의 그림을 묘사한 「천문天問」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중국 벽화의 기원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당나라 사람이 쓴 문장 중에 진시황이 아방궁을 건설한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상으로 쓴 작품이다) 그 글에서 보면 아방궁을 굉장히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시황의 무덤에서 발굴된 병마용을 보면 그 규모가 실로 대단한데요, 그곳에서 발굴된 병마용은 사람과 말의 실물 크기와 비슷합니다. 병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병사가 말은 탄 모양도 있고 말을 끌고 걸어가는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예술품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청동으로 제작된 천마天馬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듯이 뛰는 기세가 마치 하늘을 질주하는 듯합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예술가의 상상력이 참으로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동마는 고도의 예술성 덕분에 미국 박물관의 마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막고굴莫高窟의 작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진시황릉의 병마용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을 고려하면, 과장되게 표현했던 「아방궁부阿房宮賦」에 묘사된 내용들은 어쩌면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예술은 전국 시대 이전에 이미 대단한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호북湖北성 수隨현 증후을묘曾侯乙墓에서 악기가 출토되었는데요, 이 악기는 음률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세계 최초의 가장 완성도 있는 음률로 유럽 보다 800여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보십시오! 중국 고대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화는 이미 진秦나라 이후에 번성하였습니다. 굴원의 「초혼招魂」 중에 ‘상설군실-像設君室’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것은 초楚의 회왕懷王에게 하는 말로 이런

얘기지요, “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전하의 침실에 전하의 초상화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시기에 초상화가 이미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초상화에 대해 현재로선 거의 고증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30여 년간 고고학자들이 일부 문화재들을 발굴해 냈고, 이는 아주 큰 성과입니다. 이로써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더욱 귀중한 것들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서山西, 섬서陝西 지역 일대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소위 재서載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제후가 만나서 맹세할 때, 옥석 위에다 맹세한 내용들을 붉은색으로 써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선 색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검은 먹으로만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붉은 색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국시대 이전에 중국 예술의 경지가 상당한 정도에 달했다는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앞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될 것입니다. 돈황에 있는 예술품들은 거의 대부분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황 예술 자체만을 연구할 게 아니라 중국 예술의 기원과 서로 결합해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 고대 문헌 중에는 양한兩漢 예술과 관련된 문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漢대의 정치제도도 본래 진秦을 따랐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많은 경우가 백성들의 역량을 장안으로 집중시켜 얻어낸 것입니다. 황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민간의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산동山東성 효당孝堂의 석각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조상의 무덤 위에 24명의 효자 이야기를 새겨 넣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밖에 성현이나 선왕을 새겨 넣은 것도 있고, 정원을 새긴 것, 집, 꽃, 새, 물고기, 용을 새겨 넣기도 했으며, 태양신, 달 신을 새긴 것 등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한漢 대의 화전畫磚을 연구하는 데 있어 자료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현재 과학원에서는 이 화전들을 정리하고 있고, 중국의 역대 각 지역 화전에 관한 전문 서적이 곧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사천四川성 성도成都의 양자산화전楊子山畫磚을 예로 들어 볼까요? 그 화전에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의 모습, 그리고 태양신 달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풍속을 볼 수 있는데요, 농사짓는 모습, 밭가는 모습, 새를 쏘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건축물과 정자, 누각, 화원 등 있어야 할 것들은 다 그려져 있는

화전입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예술은 국가의 것이 아닌 민간의 것이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정자, 누각, 화원의 모습을 그린 화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에서 화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화가가 그 담의 높은 곳에 서서 그 담장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게 정자고, 누대인지, 또 어느 것이 집인지, 화원인지, 수로인지를 자세히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마도 후세 화가들이 그렇게 정교한 구조의 예술품을 그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예술은 중국 예술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과거의 민간 예술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한 문헌에도 잘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유가 백성들의 문화 수준이 낮았다거나 비예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문화를 기록하는 수단이 통치자 계급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지요.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은 완벽하게 기록했지만 민간의 것들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漢 나라 황실의 예술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문제文帝 때에는 미양궁未央宮 승명전承明殿 벽화와 같은 유명한 궁정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천문학과 상통하는 무제武帝 시기의 감천궁甘泉宮 천지귀신 벽화도 있습니다. 또 소제昭帝가 광광霍光에게 하사한 주공부성왕화周公負成王畫라는 궁정 벽화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살피며 주周나라를 안정시켰음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소제가 광광에게 이 그림을 하사한 이유는 광광을 주공에 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宣帝 시기에는 기린각麒麟閣에 벽화가 있었는데, 이 벽화에 모든 공신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성제成帝 시기에는 감천궁甘泉宮에 조충국趙充國장군의 초상을 그린 그림이 있었고, 흉노족의 초상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모연수毛延壽가 궁에서 그린 초상화들도 있습니다. 왜 모연수가 왕소군王昭君의 초상을 그린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흉노의 왕이 한 왕실에 통혼을 제안했고, 원제元帝는 모연수의 초상화 중 못생긴 왕소군의 초상을 보고 그녀의 초상을 흉노에게 보냈는데, 나중에 한 원제가 왕소군을 직접 보니까 왕소군이 초상화와는 달리 대단한 미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 전설 말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왕소군이 흉노에게 시집가게 된 이유가 모연수가 실수로 왕소군을 예쁘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일 그녀의 초상화를 예쁘게 그렸다면 한 원제

가 그녀를 흉노에게 시집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모연수가 궁중에서 그린 초상화는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연수가 쓴 「노영광전부魯靈光殿賦」는 「천문天問」과 마찬가지로 노魯나라의 영광靈光殿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쓴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늘, 땅, 귀신, 신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대雲臺지역의 ‘28 공신 초상화’ 역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제 때에는 비각秘閣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전국 각지의 그림을 모두 수집하기도 했지요. 영제靈帝는 별도로 화실을 만들 정도로 그림을 즐겨 그렸으며, 홍도문학鴻都門學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명제明帝 때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고, 당시의 화가들은 하얀 천 위에 불교경전 속의 그림이나 불상을 많이 그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청량대淸涼臺라 불리는 곳과 명제의 현절릉顯節陵에 있으며 그 중에는 천신만기요탑주天神萬騎繞塔走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돈황에 있는 장의조張議潮출행도나 조원충曹元忠출행도와 유사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 당시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에는 세상의 온갖 많은 예술품이 있었고, 한 왕실의 의해 잘 보존되었지만 동탁董卓의 난 당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예술사에 있어 참으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漢대의 조형예술품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늘, 땅, 귀신, 신령, 사람, 건축물,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것들을 그렸고, 돈황 벽화와 채색한 소상塑像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소상 중에 다른 나라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작품이 돈황에서 한 점 발견 되었는데, 바로 갈저葛苴라 불리는 상입니다. 이것은 마麻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그 위에 칠을 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돈황 석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술은 명대 이후까지 이어져 절강浙江성 천대天臺에도 이러한 상이 있습니다. 마를 섬세하게 엮은 후 머리와 몸통 틀 위에 덧씌운 다음 천천히 마의 걸쭉질을 벗겨내어 그 위에 칠을 해서 소상을 만드는 것으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선 찾아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아직도 지하에 묻힌 채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습니다.

한대에 동고銅敲란 것이 있었는데, 동고에는 많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동고는 광서廣西, 운남雲南, 귀주貴州 지역에 있습니다. 운남 박물관에 소장된

몇 십 점의 동고는 매우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동고 위쪽에 사람이며, 소며, 말 같은 것들을 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갈량이 남만南蠻을 정벌하러 갈 때 사용한 밥 짓는 용기가 바로 동고이지요. 이러한 동고는 서남지역에서 유행하였고 돈황까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아조각이 돈황에서도 하나 발견되었는데, 상아로 만든 조각품은 광둥廣東, 복건福建, 운남雲南과 같은 지역에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상아 하나에 18층을 조각해 놓았는데, 각 층 안에는 18명의 학사學士가 영주瀛洲에 오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 강, 동물, 짐꾼등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예술품은 타지에서 전해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인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60세 생일에 조각상을 선물했는데, 그 조각상의 머리카락과 눈썹 한 올 한 올마다 그 위에 영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크기가 겨우 4촌寸에 불과하나 정말로 대단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황에는 경전을 조각해 놓은 것도 있는데, 나무로 조각된 것으로 아주 세밀하게 새겨져 있어 현대의 조각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작품입니다. 돈황 시기에도 조각품은 있었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漢대에도 조각품은 존재했는데, 이 시대의 조각품들은 고고학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중국 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찬란한 문화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중국 내에서 돈황 예술의 기원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황 예술이 인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돈황 예술의 주된 소재가 모두 인도 불교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의 조각상이 인도의 것을 모방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불교 이야기 역시 인도에서 전해져 왔다는 것은 사실이니깐요.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조각상은 조금의 변형도 없이 인도의 것을 그대로 모방했는가, 아니면 대략적인 것만 모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조금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모방했다면 우리는 돈황 예술이 인도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일부만 모방했다면 그에 대해 또 다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소재는 인도에서 왔지만, 돈황 예술품 자체(조각상 혹은 그림)는

중국의 독자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석가모니열반상의 얼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열반상은 석가모니가 고요히 잠들어 있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살며시 괴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다리 위에 길게 드리운 모습으로 석가모니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조각상 중 석가모니의 얼굴은 대부분 검은 색이 아닙니다. 즉 인도인의 얼굴이 아니라 중국인의 얼굴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돈황 예술품은 중국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석가모니가 자는 모습이나 그 손의 자세는 인도의 석가모니와 다를 바 없지만, 잠을 자는 석가모니 상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도의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부 인도의 소국 사람들은 대체로 얼굴이 검은 편이지만 중국인들은 검지 않습니다. 돈황의 석가모니열반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중국인의 모습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의 사람들 모습이며, 가장 많은 것은 신강新疆 투르판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것을 완전히 모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대 볼까요? 일부 그림과 조각상에서 유마維摩의 병을 묻는 것이라든지, 석가모니의 출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기본 내용은 인도의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의 출가를 묘사할 때, 인도에서는 성의 담을 넘어 나오는 모습을 그렸고, 중국에도 그렇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화에서는 선을 위주로 표현했고, 인도화에서는 선이 아닌 윤염법暈染法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야기의 근원이 인도이지만 화법은 중국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비록 돈황 예술에는 인도의 이야기, 인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황 예술의 기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하자면, 초기의 모든 조각상과 그림들은 중국 남방에서 온 것이며, 당대 이후에서야 서역의 문화와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명제明帝 이후 중국은 서역과 교류를 했는데, 돈황과 옥문관玉門關 일대를 통한 교류가 아니라 복건성福建省의 천주泉州, 광서성廣西省의 북해北海 일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승려 역시 이 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지요. 그 인도 승려들은 남방에 도착해서 대량의 조각상과 그림들을 제작했는데 역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돈황 초기의 예술품

은 남방의 것과 광둥廣東, 천주泉州, 건강健康, 항주杭州의 것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중반 이후에야 중국은 서역과 교류를 하면서 소위 실크로드라 불리는 길을 통해 교류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서 불경을 구해 온 후일 것입니다. 현장법사가 인도로 간 이야기를 보면 그가 간 길은 굉장히 힘든 길로, 상황이 더 나았던 실크로드의 경우와는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법사는 장안長安에서 돈황까지, 돈황에서 다시 옥문관玉門關으로 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현장법사가 투르판 일대를 지나가려면 화염산火焰山을 거쳐야 하는데, 화염산이란 곳은 진짜로 화염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투르판 일대의 기온이 높아서 서역에 가는 이들이 이 길을 지날 때 뜨거운 날씨를 견디기 힘들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방에서 동쪽 지역을 거쳐 낙양으로 가고 다시 돈황으로 가는 노선을 지나갔다고 여겨집니다. 당대 중반 이후, 앞에서 말한 예술품들도 인도에서 신강내로 들어왔으며, 고창(高昌-투르판)에서 옥문관玉門關으로, 다시 돈황으로 갔다고 보입니다.

제가 쓴 글 중에 돈황 불교 예술은 남방에서 왔다는 것을 대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장승요張僧繇라는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화가가 그린 불화와 불전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불전도는 석가모니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석가의 평생 업적을 그린 것으로 중국에서는 초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실전되었지만, 그 그림의 존재 여부는 역사적으로 고증해 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중국회화의 4대 전형 중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로써 돈황 예술이 남방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북제北齊시기에 조중달曹仲達이란 화가가 남방에서 꽤 많은 그림을 그렸고, 후에 북방에도 그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동백인董伯仁이 그린 백작사白雀寺란 북방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북제北齊 시기에 유살귀劉殺鬼라고 불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귀신을 죽여 버린다는 뜻으로, 유살귀가 귀신들이 두려워할 만큼 귀신 그림에 능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대정사大頂寺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이 시기 남방의 고승들은 모두 인도에서 건너온 이들이었는데, 광둥에서 온 승려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광둥에서 수많은 불상이 들어와서 북쪽으로 건너갔고, 여기서 발전하여 향

주로 건너갔으며 다시 낙양으로 전해졌습니다. 화가들의 수도 많았고, 석가모니의 초상화에서부터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품들이 존재했는데, 이 일대의 큰 사찰들은 남방을 통해 인도에서 경전을 들여 놓았습니다. 초기 돈황의 예술품들은 비교적 거칠게 표현된 작품들로, 선을 사용하는 화법이 아니라 채색하는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북위 시기의 돈황 예술품들은 남방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방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인도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구자龜慈인이었던 구마라십鳩摩羅什은 후량後凉에서 왔습니다. 그는 석가모니상과 인도화를 가지고 왔고, 대동大同과 낙양洛陽의 조각상은 점점 돈황과 유사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이 시기 돈황의 조각상, 벽화는 낙양洛陽, 대동大同, 맥적산麥積山의 조각과 비슷합니다. 그 형식이 점점 변해오다가 당唐대 중엽에 들어와서 불교문화가 대거 유입되면서 돈황 예술이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환점이 있었지요. 바로 당唐대가 그 전환점인데, 이 시기에 대량의 인도 물품들이 중국으로 들어온 후 중국화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서역(신강일대)의 예술품과 중원의 예술품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돈황 예술품에도 중국화 된 것들이 보입니다. 전성기의 돈황 예술품은 간다라 예술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기본 화법은 선을 이용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간다라식 화법을 사용한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당唐대에는 서역과의 무역이 활발하였고, 서역의 상인, 선교사, 학자들이 인도의 물품들을 들여왔는데, 인도에 있는 아잔타 석굴 사원의 것들도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잔타 사원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돈황보다 오백년이나 일찍 건설을 시작했지만, 느리게 진행되어 돈황보다 200년이나 늦게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잔타 사원의 예술품도 뒤늦게야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남방에서 북방으로 전해진 대다수의 예술품들은 아잔타 사원의 것이 아니라 인도 소국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잔타의 예술품이 중국으로 건너온 시기는 당唐대 이후이며, 당으로 들어온 후 중국화 되었습니다. 중국의 예술품들도 아잔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연구한 이가 없으니, 인도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과 인도의 예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예술은 인도 예술의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으나, 방법 면에선 중국의 전통 방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중국인이 인도의 것들을 모방했지만, 북위北魏 이후 점점 변해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돈황에 있는 예술품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그림이 만약 북위의 것이라면 그 그림들은 선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설법도와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북위北魏 이후 그림들은 점점 인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중국과 인도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돈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잔타로 가서 3~5년, 혹은 십여 년 간 연구하면서, 그곳의 예술품들을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의 예술품들을 그곳 학자들에게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잔타에도 중국의 예술품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예술가들에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무척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唐대 이후의 돈황 예술품들 중에 공양한 사람의 조각상마다 그 위에 공양하는 사람의 지위가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황 왕인 조원충曹元忠은 후에 귀의군歸義軍 절도사節度使로 임명되었는데, 이 때문에 조원충의 초상화에는 모두 귀의군 절도사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조원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양하는 사람들의 초상화에도 측면에 누구누구가 공양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써 넣었는데, 예를 들어 조원충의 부인이라든지, 조원충의 큰 딸인데 누구에게 시집을 갔다든지, 어느 나라에서 조원충 가문에 시집을 왔다든지, 조원충 가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중국의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어서, 돈황 동굴이 발굴된 직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자료들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그 자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일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부자 관계 혹은 모녀 관계, 그 다음으로 자손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런 정리 과정에서 우전于闐의 공주나 투르판의 공주가 시집온 경우도 있었고, 조원충 가문에서 우전于闐 혹은 투르판이나 구자龜茲로 시집간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정확히 기재하여 조씨세보曹氏世譜란 책을 편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원충 가문은 몇 백 년 동안 돈황에서 어떻게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원충 가문은 송나라 고종 때까지도 서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였으며, 당 나라 말기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신장新疆은 평안함을 유지했으며, 숙주肅州 밖에 있는 소수민족은 당과 송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대 관계는 조원충 가문과 서역 제국이 혼인 관계로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원충 이전에 돈황 절도사였던 장의조張議潮 역시 혼인 관계로 서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혼이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관계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통혼입니다. 통혼은 춘추전국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당시 주周 왕실의 자손은 다른 가문의 처자를 얻고자 하였고 다른 가문의 제후 역시 주周 왕실의 처자를 후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혼인 관계를 정치의 보조 수단으로 삼은 것이지요.

한漢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왕소군王昭君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이고, 당나라의 공주가 모두 다른 나라로 시집간 것도 그 예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런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일종의 책략으로, 이러한 혼인 관계에 의한 책략은 변방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나라는 말 할 것도 없고, 청淸나라 역시 서역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청淸 고종이 향비香妃를 비로 삼고, 청나라의 처자들이 티베트 승려에게 시집가는 것이 유행했던 이유는 모두 통혼 때문이었습니다. 장의조 가문과 조원충 가문의 혼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조씨세보총표曹氏世譜總表」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원충 가문의 시조였던 조의금曹議金은 세 명의 색索 씨, 왕王 씨, 이추 씨 부인을 두는데, 이것은 돈황 주위의 소수민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씨는 회골回鶻의 공주였으며, 그녀의 큰 아들은 조원심曹元深이고, 조원심의 아내는 초군譙郡 부인이란 이름을 하사 받은 인물입니다. 조원충의 아내 적翟 씨 역시 서북 지역의 소수민족이었고, 조원충 가문의 딸

들도 소수민족에게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조원단曹元端의 장녀는 회골回鶻의 칸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우전于闐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우전于闐으로 시집가서 황후가 된 조원단曹元端 차녀의 딸이 조원충의 조카에게로 시집온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아주 밀접한 혈연관계를 맺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돈황 예술을 종합해 봅시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돈황 예술은 중국 전통예술의 일부분입니다. 은허殷墟에서 발굴된 사람 모양의 조각상, 석각, 청동기 무늬 등을 통해 중국 예술이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주殷周 예술은 은주에서 한 순간 특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변천의 시간을 지나 그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변천 과정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자료도 없어서 새로운 발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은주殷周 이전의 예술품은 민간의 것들이 많은데, 도자기나 청동기 위의 무늬에서 민간의 취향과 풍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민간 예술품은 고고학에서 발견한 것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시대 이후에야 벽화가 생겨났고, 소상塑像이란 예술 장르도 전국 시대 이후에서야 생겨났지만, 진시황릉의 병마용은 그 예술적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굴원의 「천문天問」에 나오는 벽화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한漢대에 이르러 문文, 경景, 무武 및 헌憲, 원元, 성成 등의 황제 시대에 모두 초상화가 있었으며, 기린각麒麟閣에 그린 그림,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는 것을 그린 그림인 ‘주공부성왕상周公負成王像’, ‘28 공신 초상화’ 등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실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양자산楊子山에 있는 전화磚畫처럼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낸 것들은 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화磚畫 양식은 산둥이나 사천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모두 돈황 예술의 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황 예술은 중국 전통문화의 발생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앞에 서술한 것들이 모두 돈황 예술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황 예술의 근원에 대해서는 인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해도 중국의 역사 문헌에는 그것들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돈황의 모든 예술은 중국 예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중국 회화는 선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선의 기원은 중국 문자입니다. 따라서 글과 그림이 기원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돈황화 역시 선에 기초한 것으로 돈황화는 중국 화법을 위주로 하지만, 그 소재는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란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황 초기의 조각에도 인도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중국 남방을 거쳐 건너간 것으로, 당 나라 이전의 조각상은 인도에서 광둥廣東, 천주泉州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당唐 이후의 예술품들은 아잔타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근본은 중국 고유의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바로 돈황 예술의 내력입니다.

제2강 돈황 권자卷子의 연구 방법

마이크로필름에만 의지해서 돈황 권자를 연구한다면 많은 곳에서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진면목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이크로필름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권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황 권자 자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돈황 권자는 내용이 복잡하고 얘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권자의 양

우선 권자의 양에 관한 설명부터 하기로 하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권자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권자들이 다른 국가의 박물관, 도서관 혹은 개인 수중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략적인 수치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약 6~7만 권으로 추정되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도 2~4만권이 있으므로 총 10만권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쓴 글이나 한 부의 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연대가 오래된 돈황 권자는 기존에 권자를 엮고 있었던 매듭과 풀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버려서 권자 하나가 두 부분으로 나뉘다거나, 어찌면 열 몇 권으로 나뉘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자의 숫자는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권자 수가 아니라, 구체적 모습을 띤 권자의 수이며, 권자 수에 대해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돈황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뜯겨나간 권자들을 합칠 수 있게 된다면 열 몇 권의 작은 권자들을 하나의 큰 권자로 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권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권자의 과학적인 수를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간이나 다른 국가에 권자가 더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2. 권자의 분류

권자의 종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자는 약 90% 이상이 불교 경전이고, 경전은 다시 경經, 율律, 론論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뉩니다. 나머지 5%에서 10%는 유교 경전과 도교 경전, 역사 자료 및 사회사적 사료, 그리고 민간 계약에 관련된 것 등입니다. 권자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자면 8~10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분류하면 90% 이상의 불교 경전과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 방법은 현재 돈황 권자의 목록을 분류하고 있는 학자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목록은 단순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펠리오(Paul Pelliot)와 스타인(Marc Aurel Stein) 그리고 일본인 오타니(大谷光瑞)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번호를 매겨놓았는데, 이런 방법은 권자 한 권에다가 하나의 번호만 매긴 것으로, 별도의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목록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일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등록 번호와 유사 합니다. 그들의 자료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학술 규모에 따라 모든 권자를 분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현재로선 불교경전과 그 이외의 기타 권자로 분류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 이상 더 세분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권자의 형태

권자의 외형으로만 보면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권長卷으로, 긴 형태의 권자입니다. 이 권자 윗부분에 나무로 된 족자봉이 있는데, 현재는 족자봉이 없는 권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원래 있었는데 떨어진 것인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권자는 불교 경전이 제일 많고, 권자 한 개는 종종 한 부의 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는 이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표배장裱背裝 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술 용어는 글자나 그림을 표구한 것을 표배장裱背裝이나 장표裝裱라고 부르는 데서 차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배장은 권자 뒤쪽에 종이 한 장을 덧 바른 것으로 요새는 ‘탁拓’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황 권자의 표배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표구된 것으로, 글을 다 쓴 후 그 뒤에 종이를 덧바르는 표배장 풍조가 당唐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기록보관소에는 표배장 기술자가 있었고, 돈황의 사찰에도 이러한 기술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권자들은 비교적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래는 표배장이 아니었지만 후세 사람들이 권자를 정리하면서 종이를 덧바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후세 사람이 표배장을 한 경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P.2011호는 원래 양면에 쓴 것으로 표구가 불가능한 권자입니다. 그러나 이 권자가 표구되어 있다면,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덧바른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표구되어버린 뒷면을 제대로 알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유반농劉半農선생의 「돈황철쇄敦煌掇瑣」에 이 권자가 수록되어있는데, 그는 이런 표배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은 채, 한 면으로 된 권자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책은 한 쪽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돈황의 권자를 연구할 때 권자의 형태를 잘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마이크로필름에서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한 표배장을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나중에 표구된 권자인데 처음부터 표구된 권자라고 잘못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표배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호접장蝴蝶裝이란 것입니다.

호접장은 양면에 쓴 권자로, 한 면을 다 쓴 후 뒷면에 글을 쓰면 오늘날의 신문지 양면 인쇄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양면에 쓴 것을 책자로 엮을 때, 가운데 부분에 풀을 먹여 엮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책장의 모습이 마치 나비와 같습니다. 호접장은 원래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후세 사람이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 사람이 끼워 넣었다고 해도 권자 자체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연히 한두 줄이 붙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표배장裱背裝 만큼 심각하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날장입니다.

날장으로 된 것은 뒷면에 표구를 하지도 않고, 장정裝幀돼 있지도 않은 형태의 권자입니다. 대부분 기치旗幟, 도안, 편지, 영수증, 계약 등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학술적인 가치에서 보자면 불경이나 유교 경전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농부가 어느 절에서 쌀 두 포대를 빌렸는데 후에 나귀 한 마리

나 말 두 필로 갓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의 물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집의 아들이나 딸을 다른 집의 종으로 보내면 돈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당唐대 서북지역의 민간 풍속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사적 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당시 서역의 36개국을 말함)과 거래하던 계약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의금, 조원충이나 장의조의 아들이 서역 소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을 때 혼수 목록을 작성해서 어떤 것들을 예물로 보냈는지를 기록했는데, 그 목록을 보면 예물의 가격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 풍속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낱장은 돈황의 권자 중 제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이 이미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1920년대에 제가 북경에서 공부할 당시 서점에 가면 종종 이러한 낱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초고草稿 즉, 메모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곳에서 부처상을 빚고 벽화를 그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누가 그 돈을 댔으며 또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누가 그 상을 만들었으며 누가 그렸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돈황의 역사를 연구하려면 이런 자료들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 자료들을 매우 중시해서 종이 조각 하나라도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연구합니다. 제가 듣기론 어떤 일본인은 당唐나라의 관품官品에 대해서 2만여 자나 되는 전문적인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4. 권자의 내부 양식

권자의 내부 양식에 대해 얘기하자면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종이의 특징부터 살펴보지요. 권자의 종이 규격을 보면 대체적으로 폭이 21센티미터이고 길이가 19센티미터인데, 더 넓은 것은 24센티미터도 있고 더 작은 것은 16센티미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이의 크기는 권자에 영향을 주었는데, 한 권자에 한 종류의 종이만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 크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이의 산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권자의 종이 중에는 촉蜀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낙양洛陽지이며 강절江浙지가 제일 적게 보입니다. 촉지는 좀 넓고 크며, 재질이 약간 성긴 편입니다. 낙양지가 가장 인기 있었는데, 이 낙양지는 장안長安으로 가져가 재가공 했으며, 종이 색은 황색과 백색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황색 종이를 간혹 숙지(熟紙)라고도 하는데, 숙지는 종이에 양초를 아주 얇게 먹여서 만든 것으로 약간 투명하고, 글을 쓰기가 편합니다. 숙지는 돈황 권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이로, 이 종이에 쓰인 권자들은 모두 중요한 경전들이며, 「도덕경(道德經)」도 거의 대부분이 이 종이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 볼 것은 글자와 행의 수입입니다. 한 지면에 적힌 글자 수나 행의 수는 모두 대략적인 규격이 있습니다. 한 지면의 행의 수는 약 19행에서 21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행 사이에 끼워져 있는 주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행에는 약 17 글자에서 19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草稿)는 너무 뻑뻑하게 쓰여 있어 행의 수나 글자 수에 관한 통계를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이나 글을 집어넣는 난(欄)의 유무입니다. 각 지면에는 세로로 길게 된 네모난 난이 그려져 있습니다(가로 칸은 드물게 보이며 간혹 바둑판 모양의 네모난 칸도 있습니다). 바깥 난은 비교적 굵게 그려져 있고, 안쪽 난은 비교적 가늘게 그려져 있으며 같은 굵기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해 온 권자들은 바깥 난은 굵고 내부 난은 가는 형태로, 송(宋) 이후의 서적과 같은 형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선장서(線裝書)를 보면 선장서의 중간 부분에 여백이 있고(어구(魚口)라고 함), 그 아래쪽에 글쓴이의 이름이 있지만, 돈황의 권자에는 난만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이러한 난도 드물게 보이며, 산만하고 글자 수도 불규칙적입니다.

5. 서체

권자의 서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잘 쓴 것과 못 쓴 것,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잘 쓴 것은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게 쓰여 있습니다. 최근 백 년간 많은 이들이 소위 사경체(寫經體)라 불리는 당경(唐經)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보면 그 당시 사용한 붓은 아주 뾰족한 붓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당나라 때의 붓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의 붓이 당나라 붓을 모방한 것으로, 유추해 보면 당나라의 붓이 굵으면서도 끝은 뾰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나라 시기에는 필사하는 이와 작가가 서로 다른 붓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서체는 안(顔)체, 류(柳)체, 구(歐)체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제일 많이 나타

납니다. 안顔체, 류柳체, 구歐체 이전의 해서체로 쓰인 돈황 권자의 글씨는 비록 보기에 예쁘진 않지만 고전적인 미가 느껴집니다. 또한 팔분서八分書의 모습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대는 서법 변화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이 쓴 서법寫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못 쓴 글씨는 매우 못 썼고, 낱장으로 된 권자는 더 조잡합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병사나 도사가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서체로 된 글씨는 심하게 흘려 썼고, 먹은 너무 얇은 것이 침을 발라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가 성공하려면 종합적인 요소가 두루 갖춰줘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붓과 좋은 먹 등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쓰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면에 쓰는 것으로 앞면의 마지막 행에 이어서 뒷면의 첫 행을 쓰고, 앞 장의 마지막 행에 이어 다음 장의 첫 행을 쓰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면에 쓰는 방법입니다. 단면에 썼던 이유는 종이 재질과 연관된 것으로 종이 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권자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단면에 썼던 것으로, 불경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법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권자의 부호

권자의 부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 옆에 부호를 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 난欄 옆에 부호를 더한 것입니다. 후자는 주로 숫자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운서韻書의 경우, 일동一東 이동二冬 삼중三鍾의 一, 二, 三을 난欄 밖에 써 넣었습니다. 전자는 본 문장에 써 넣은 것으로, 자서字書의 반절反切위에 원을 그리고 그 위에 글자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밖에 검은 점과 빨간 점으로 된 부호도 있습니다. 검은색 부호는 글을 쓸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고, 빨간 부호는 후에 교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자가 틀리면 빨간 점을 찍어 새로 고쳤던 것이지요. 또한 행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위쪽에 점을 찍었는데, 점 하나는 첫 번째 행을 의미하고, 점 두 개는 두 번째 행을 나타냈습니다. 교정 부호도 있었는데,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 옆에 하나를 더 써 넣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간단하지만 구두점 부호들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호들 역시 권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운서를

예로 들자면, 소운小韻의 검은색 원 밑에 반절과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글자가 빠졌는지, 혹은 거꾸로 고친 숫자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경에도 많은 부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석가모니를 쓸 때 행을 달리 하여 써야 하는데, 간혹 이것을 잊어 버려서 같은 행에 썼을 경우 얼른 부호를 사용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이런 표시가 안 보입니다. 또한 빨간색이나 검은색을 사용하여 말이나 행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유교 경전 중 「시경詩經」을 예로 들면, 어느 나라의 풍風인지를 구분할 때 「시경詩經」 밑에 점을 찍고, 그 나라 풍風 아래에도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편篇 아래에 점을 찍고 행 밑에 점을 찍어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시경詩經」에는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방법으로 국풍國風과 이아二雅, 삼송三頌을 정확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필사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아爾雅」를 예로 들면,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인지 두 글자가 하나의 뜻인지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호는 당나라 사람들의 책을 읽는 방법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료를 대조하고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황 권자에는 이처럼 점을 찍어 문장을 끊어 읽는 경우는 드물지만 ‘단호斷號’란 것은 있습니다. ‘단호斷號’란 글을 쓰다가 행을 달리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글자를 이미 끝에 써버렸으면 표시를 하여 끊는 것입니다. 혹 몇 개의 점을 찍어 놓은 생략 부호도 드물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호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것으로, 돈황 권자를 정리하는 작업과 관계가 깊습니다.

7. 교감校勘방법

교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은 고적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작업입니다. 잘못된 책을 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황 권자의 교감은 일반 고적의 교감과 다릅니다. 교감은 일반적으로 원본과 판본을 대조하여 교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돈황 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황 권자는 권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필사筆寫 하는 이에게 만들게 한 것이지요. 필사하는 이가 필사를 마친 후 그것을 원본과 대조하여 틀린 글자가 있

으면 교정한 것이므로, 엄격히 말해 필사하는 이가 대조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사하는 이가 틀린 글자를 발견하면 그 글자를 교정하는 식입니다. 현재의 교정 방법은 틀린 글자를 지우거나 도려낸 후 다시 고쳐 넣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권자를 양면에 썼기 때문에 도려낼 수도 없었고, 틀린 글자를 지우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그 틀린 글자의 왼쪽 위 부분에 두 세 개의 빨간 점을 찍어 고친 글자를 써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글자가 너무 많이 틀리면 새로 한 부를 썼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각형으로 틀린 부분을 칠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만일 한 두 글자가 틀리면 그냥 두었을 것이고요. 행 사이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친 글자는 원래 글자보다 좀 더 작고 가늘게 씁니다. 이는 틀린 글의 옆에 바로 글을 첨가해서 쓴 경우입니다. 만일 글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서 그 줄에서 바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S’자 모양의 부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수정한 글자를 위에 써 넣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밖에 한두 글자가 빠진 경우, 바로 그 줄에서 그 빠진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의 약간 아래쪽에 첨가해 넣었으며, 이 경우에도 구불구불한 끼워 넣기 부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글자가 윗글자의 아래 부분에 쓰여 있으면 그 글자는 첨가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두 글자가 빠진 경우는 이렇게 수정했고, 만일 긴 문장이 빠진 경우라면 종이를 거꾸로 돌려서 씁니다. 빠진 글자부터 쓰기 시작해서 다 쓰고 난 뒤, 그 것을 본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왼쪽 글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천천히 채워 나갔습니다. 한 두 글자의 경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다수일 경우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행을 넘게 쓰면 종이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종이를 바꾸는 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문장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양면에 쓰인 권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면에 쓰인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틀린 행을 잘라버리고 그 위에 같은 크기의 다른 종이를 붙이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이지요. 틀린 글자는 점을 찍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빠진 글자는 끼워 넣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규칙을 엄격히 지켰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권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감 방법에는 앞서 말한 방법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교감이 끝나면 바깥 난간 옆에 작은 글씨로 이 문장에 글이 몇 자가 적혀 있는지, 틀린 글자는 몇 개이며, 빠진 글자는 몇 글자인지를 한 줄 적어 넣었습니다. 이 역시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권자를 볼 사람이 상단부를 보면서 틀린 글자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권자를 다시 필사할 때 우선 교정한 후 필사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돈황 권자에서 글자가 많이 틀렸거나 많이 빠지는는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교감의 범위에는 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문의 사람이 필사한 돈황 권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바 있는 오채란吳彩鸞은 운서를 하루에 한 권 썼는데, 그녀의 운서는 오만 자 이상으로 교감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누가 썼는가를 볼 게 아니라 누가 소장했는가를 봐야합니다.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의 경우 그 책 뒷면에 어느 절의 사경생寫經生이나 사경승寫經僧이 썼다고 적혀 있으면 이것은 절에서 쓴 것입니다. 만일 이런 글귀가 없다면 그것은 개인이 쓴 것이지요. 개인이 쓴 것에 교정한 글자가 없다고 해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용만 이해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교정한 것을 구태여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특수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서 쓴 것으로 이 역시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이전에 조원충이 7살 때 글을 배우면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敦煌曹元忠寫,年七歲 - 돈황의 조원충이 씀, 나이 7세’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폐지와 같은 것으로 이 역시 교감의 범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8. 제함題銜

제함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권자를 완성한 후 뒤쪽에 많은 내용들을 추가해서 적는데 이것을 제함이라고 합니다. 제함의 내용은 누가 썼는지, 어느 본을 근거하여 썼는지, 어느 절에서 소장하고 있는지, 누가 소장한 것인지, 이렇게 네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권자의 제함 부분에는 작가, 역자, 필사한 이와 그 권자를 쓴 사람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필사했는지, 왜 이 권자를 썼는지 하는 짧은 글도 종종 적혀 있습니다. 예들 들어 ‘어느 집 시어머니가 손

주 보기를 기도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사람을 시켜 경전 한 부를 필사했다. 그것을 절에 가져갔고 그래서 이런 글을 적는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제함이 매우 많으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풍속을 상당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함 중에는 환자가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제일 많고, 며느리가 아이 낳기를 바라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밖에 가족의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양도 제일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민간의 것으로 부자나 신분이 높은 이들은 이처럼 사경寫經을 해서 복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벽화를 그리거나 부처상을 조각해서 복을 빌었는데, 장張씨 가문이나 조曹씨 가문이 그 예입니다. 일반 백성은 설사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해도 불상을 조각한다든지 벽화를 그릴만큼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경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기원한 권자로는 「금강경金剛經」과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이 제일 많습니다. 이 두 불경이 불경 가운데 종교적 의미가 제일 깊기 때문에, 철학적 의미가 심오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경전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을 써서 복을 기원하는 사람을 공양인供養人이라고 합니다. 어떤 권자는 작가, 역자를 쓴 후 제일 나중에 공양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어느 절에 소장되었는지에 관한 문구도 있을 것입니다. 돈황 권자 가운데 절강浙江의 절에서 쓴 경전을 가져와 소장한 것도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 불교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절에서 소장하고 있는지를 쓴 것도 제함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함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누군지를 통해 그 권자의 연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함이 중요한 자료라는 증거입니다. 당시의 빈곤한 학자들이 사경寫經을 했었는데, 따라서 그들은 평생 동안 경전을 한 권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을 썼습니다. 모든 경전에는 연, 월, 일이 쓰여 있는데, 개원開元 2년에서 대덕大德 5년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 경전을 사경寫經한 사람은 그 시기의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권자의 작가와 시기도 이런 방법을 통해 추측할 수 있으며, 어느 시대에 어떤 종류의 경전을 쓰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자의 연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30권짜리 「돈황학과 논문집敦煌學論文集」에 사경생寫經生 이름

및 사찰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각각 한 권씩 엮어 넣었습니다.

9. 권자의 기록 시기

돈황 권자를 읽다 보면 부주의하게 연대를 잘못 적어 놓은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자의 본제목에 개원開元 2년이라고 써 있다면 우리는 개원開元 2년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그 권자의 뒤에는 또 대덕大德 ×년 이라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이를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또 대덕大德 ×년이라고 생각해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 권자는 개원開元 2년에 쓴 것이고, 대덕大德 ×년이란 것은 그 권자를 소장한 사람이 썼거나 후세 사람이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당唐대는 개원開元년과 천보天寶년이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권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래는 개원開元년이나 천보天寶년 이후에 쓰인 권자들을 이 시기의 것이라 조작해서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 연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끝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일 앞쪽의 연대가 믿을 만하며, 제일 뒤쪽의 연대는 후세 사람이 다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이의 재질, 먹의 색깔, 서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야만 연대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연대에 관한 것 중 앞서 말한 것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당唐대에는 황제의 연호에 특징이 있는데, 특히 오대五代 시기에는 황제가 모두 단명하여 재위 기간이 3년 혹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호가 10년이나 8년이라고 쓰여 있는 권자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러 조작했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대五代 이후 돈황과 장안의 관계가 종종 단절되었기 때문에 소식을 제대로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당나라의 황제가 바뀌어도 돈황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돈황의 백성들은 원래의 연호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지요. 심지어 송 왕조가 시작되어서도 오대五代의 연호를 썼던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를 연구하는 일은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권자의 연대를 고증하는 일을 가볍게 보고 대충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성실한 연구자들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로 한 영국 학자가 쓴 「연대가 있는 돈황 권자에 대한 고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밖에 연대를 조작한 것이 또 있는데, 연대를 제일 많이 조작한 사람인 나진

옥羅振玉은 권자에 태종太宗 연호를 적어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는 많은 권자를 얻게 되었고, 그 권자들의 가치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일본인 총리를 속여 약 500여 냥의 금을 받고 권자 한 권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 권자 자체는 가짜가 아니지만 연대는 가짜인 것이지요. 이렇게 연대를 조작한 것 말고도 권자 자체가 가짜인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진품처럼 복제품을 만든 것인데, 한 프랑스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권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가 권자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팔았습니다. 이 두 권자를 대조해 보니 한 사람이 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두 권자를 자세히 대조해 보았는데, 그 결과 나중에 가져온 권자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기존 권자의 복제품이란 것을 알아냈습니다. 종이는 둘 다 진짜인데, 하나는 복제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권자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복제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펴야 가짜라는 것이 명확해 집니다. 이렇게 권자를 조작할 수는 있지만 먹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먹은 명명대의 것으로, 당唐의 먹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당唐대에는 유연(油烟 기름이 연소될 때 생기는 검은 연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먹은 송연(소나무연기)을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먹의 종류는 화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돈황 관련 지도부에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돈황 권자들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권자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10. 양면권자와 단면권자

양면권자와 단면권자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불경은 양면권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도덕경道德經」은 단면권자가 다수입니다. 유교경전과 기타 역사 자료들은 양면권자와 단면권자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있습니다. 원래는 단면권자였는데 양면권자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경道德經」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원래 「도덕경道德經」은 단면에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글자가 없는 뒷면에 초고草稿 등을 썼고, 그 결과 한 면은 당나라 사람이 쓴 것, 다른 한 면은 송나라 사람이 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양면

에 쓰인 한 권의 책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한 시대에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면권자인지 양면권자인지 판단하려면, 앞면의 끝 행과 뒷면 첫 행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내용이 앞뒤가 연결되지 않으면 뒷면은 후대에 첨가한 것이지요.

원래는 양면권자였는데 후에 단면권자로 바뀌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대五代 이후부터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져 돈을 벌려고 많은 이들이 양면에 쓰인 것을 얇은 종이에 교묘히 붙여서 단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쓰인 것인지 양면에 쓰인 것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唐의 종이는 짜임이 견고하고 송의 것은 비교적 성긴 편이어서 당唐, 오대五代, 송宋의 종이 재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황 권자가 단면인가 양면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돈황 권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보다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면이었던 권자가 양면으로 변한 경우는 그 한 면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가짜임에 틀림없지만, 그 가짜가 학술적으로 종종 훌륭한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불경의 경우, 후대에 더해진 것이 사회사 사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장희심전 張淮深傳」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전기傳記는 이미 산실되어 버려서, 이것이 권자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면에 쓴 원래 내용보다 후대 사람이 첨가한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사 사료, 계약서, 서신과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도 있고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양면과 단면 구분이 어렵지만, 양면 모두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얇은 나무쪽에 쓰인 소독小牘은 작은 나무 조각이어서 대체적으로 단면이 많은 편이고, 계약을 적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소독小牘의 경우는 양면권자인지, 단면권자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11. 돈황 경전의 일부 부록

권자의 본문을 다 쓰고 난 후 부록을 쓰는데, 그 부록들은 본문 내용과 관계가 깊습니다. 물론 후대 사람이 쓴 부록으로, 본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부록’이라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부록’이라 하는 것은 경

전 본문과 절대적 관계가 있는 그런 부록을 지칭함을 미리 명확히 해 두겠습니다. 두 종류의 권자가 90%이상 부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도교 경전과 불교 경전입니다. 기타 유교 경전과 사회사 사료, 역사 자료 권자에는 부록이 없거나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덕경道徳經」과 불교 경전의 주요 부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록의 내용이 상당히 많고, 다른 권자들에도 부록이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덕경道徳經」 뒤에 첨부된 「십계경十戒經」입니다.

「도덕경道徳經」의 뒷면에는 종종 「십계경十戒經」(「十戒經」은 도가에서 계율을 말하는 중요하고도 간단한 경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돈황의 「도덕경道徳經」은 하상공河上公 본이 대부분인데, 하상공河上公은 도교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그가 주석한 「도덕경道徳經」에 「십계경十戒經」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왕필王弼이 주석한 권자도 한두 권 있는데, 그가 주석해 놓은 권자에는 「십계경十戒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권자의 부록이 본문과 아주 커다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 경전의 독음입니다.

불교 경전 권자 90% 이상이 그 경전 권자에 나오는 글자의 독음과 의미를 뒤쪽에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불경 독음은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 온 후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글자를 잘못 읽으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은사靈隱寺에 가면 '南無阿彌陀佛'라고 쓴 큰 글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nán wú ā mí túo fó'라고 읽으면 잘못 읽은 것으로 'ná mó ē mí túo fó'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南無' 이 두 글자를 'ná mó'라고 읽어야지 'nán wú'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불교 경전 뒤쪽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다른 고서에서도 있을까요? 우리의 민간 풍속이나 다른 경전에서 이 불교 경전의 독음과 같은 경우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불교 경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중국에 존재했던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경의 뒷면에 있는 독음은 학술적인 면에서, 특히 중국어 음운학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唐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불교

경전 뒷면에 있는 독음부분을 「일절경음의一切經音義」란 책으로 엮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혜림慧琳이란 승려입니다.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은 교리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불경의 독음 방법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독음 방법이 서로 다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승려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경의 본문 내용을 연구하는 것 외에도 독음 부분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경 뒤편의 독음을 한 두 권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내려 온 혜림慧琳의 「일절경음의一切經音義」가 같을까요?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긴 했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광범위합니다. 도교 경전, 불교 경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전에 있는 것으로, 바로 돈황 권자의 제기題記라는 것 입니다. 제기라는 것은 왜 이 권자를 썼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 권자를 썼는가, 어떤 내용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원문發愿文’이란 것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쓴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 복을 얻고자 한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발원문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면서 경전을 쓴다’라는 내용을 쓰는 것이지요. 이런 발원문이 있는 권자는 민간에서 들어온 것으로 승려나 사찰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물론 집안 관리인의 발원문이나 부자의 발원문도 가끔 보입니다. 발원문은 도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에만 나타나고, 유교 경전이나 다른 경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사문記事文 입니다. 유교 경전에는 발원문에 가까운 기사문이 있는데, 나는 왜 이 경전을 쓰는가, 책을 잘 읽기 위해서 혹은 유가의 어떤 경전을 잘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 경전 기사문에 있는 것은 주로 「효경孝經」입니다. ‘나는 부모를 위해 어떻게 하려고 효경 몇 권을 씁니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사문에는 발원의 의미가 약간 담겨져 있습니다. 이외에, 경전에 글자가 얼마나 적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를 적은 것도 있습니다(얼마를 들였는가를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은 틀림없이 발원문일 것입니다. 발원문이 아니라면 승려나 도사가 이런 상황을 적어 놓았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제함題銜으로, 사경寫經, 장경藏經, 독경讀經, 송경誦經을 하는 경생經生 · 사생寫生의 이름을 명확히 써 넣었습니다.

또 대덕大德이란 것도 있는데 어느 큰 스님의 권자인지 어느 사찰에 있는 권자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부록에 속합니다.

이외에 제가 감히 단정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외국의 문자나 다른 민족의 문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토하라(Tocharians)어, 팔리(Pali)어, 마니(Mani)어, 튀르크(Turkic)어, 티베트(Tibet)어, 서하(西夏)어 등으로 되어 있고 모두 뒷면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자들을 모르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는 이러한 문자들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돈황 학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12. 다수의 특수 상황

돈황 권자에는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은 우리가 돈황 권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므로 이 자리에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수 상황에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된 권자들을 하나로 엮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우선 권자를 제대로 식별해내야 합니다. 권자들을 잘못 연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제일 처음 그 권자가 단면권자인지 양면권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면권자는 단면권자끼리, 양면권자는 양면권자끼리 분류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후세 사람들이 고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면권자의 경우 후세 사람들이 고쳐 넣은 것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서 별 문제는 없지만, 양면권자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양면 모두를 고친 것인지, 한 면만 고친 것인지, 어떻게 고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수중에 권자 열권밖에 없는데, 그 권자들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그 짝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따라서 모든 권자들을 한 곳에 모은 후에야 그 권자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 개

개인의 서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지요. 우선 모든 돈황 권자를 수집해 놓고, 열 명 정도의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 다음,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권자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숙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자들을 가운데에 늘어놓고 둘러앉아 각각 권서를 찾고 조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인 것입니다. 대충 처리한다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구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연결할 수 없는 나머지 권자들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남겨두겠습니까? 남겨진 권자들은 훼손되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훼손이 거의 안 된 권자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런 권자를 엮는 문제는 우리가 돈황 권자를 정식으로 연구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훼손입니다. 일부 권자들은 부패되어 두 세부분으로 나뉘져 버리기도 하고, 모서리가 뜯겨 나가 버린다던지 절반이 잘려 나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설령 권자가 찢어지고 부패되어 몇 부분으로 나뉘었다 해도 훼손만 되지 않았다면 원래대로 엮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훼손된 상태라면 원래대로 복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훼손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권자 지면의 훼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자 한 권을 예를 들자면, 원래는 21cm이었는데, 훼손되는 바람에 한 행은 10cm가 잘려 나갔고, 한 행은 5cm만 잘려 나갔으며, 또 어떤 한 행은 겨우 2cm ~ 3cm밖에 안 잘려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1cm 짜리 권자는 어떤 행은 반 행만 남고, 어떤 행은 3분의 2만 남고, 또 어떤 행은 3분의 1행, 어떤 행은 4분의 1행, 심지어 어떤 행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런 훼손 문제는 돈황 권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권자의 전모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 이런 기초는 우리들의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행에 몇 개의 글자가 훼손됐는지, 대충 어떤 글자인지를 판단한 후 앞서 말한 교감校勘 방법으로 그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자의 훼손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운데 부분의 한 글자가 훼손되거나 좀먹어 버린 경우가 많고, 혹은 중간 서너 행이 가운데 부분이 좀먹어서 일부분이 훼손되어 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훼손된 부분은 복원하기가 힘들다고 흔히

들 말합니다. 사실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가운데 일부분이 훼손된 경우는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행마다 윗 문장과 아래 문장이 존재하는데, 그 권자의 원서를 가지고 대조해보면 훼손된 부분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경우는 모서리 부분이 훼손된 경우나, 몇 행이 한꺼번에 훼손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근거로 권자 전체의 글자 수나 앞면의 행 수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은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권자 앞 쪽에서 몇 행이 훼손되었는지, 약 몇 글자가 훼손되었는지, 혹은 뒤쪽에 몇 행이 훼손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글자가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권자 한 권을 그 자체로만 얘기하자면, 어느 페이지에 몇 개의 압운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미 훼손되었다고 합시다. 도대체 어느 압운이 훼손되었는지, 몇 글자가 훼손되었는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본(本)으로는 대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권자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권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중, 어떤 것은 육법언陸法言의 원본이고, 장손눌언長孫訥言 본본에 속하는 것도 있고, 손면孫備 본본에 속하는 것도 있으며, 왕인구王仁詢 본본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것은 도대체 어느 본본에 속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온 본본에 근거하면, 누구의 책에는 몇 백자, 혹은 몇 천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를 통해 이 권자는 백 글자가 훼손되었으니, 육법언陸法言의 권자가 아니라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법언陸法言은 글자가 얼마 없는데 이 권자는 너무 많은 글자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왕인구王仁詢의 것일까요?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좀 더 검토를 해 보니 제가 앞서 말한 네 명의 것과 상황이 전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권자는 장손눌언長孫訥言, 손면孫備, 왕인구王仁詢 등의 권자가 아니라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 봐야 하는데 이주李舟의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주李舟의 것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몇 글자, 몇 행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이 권자가 도대체 어느 본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훼손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훼손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권자가 습기를 먹었거나, 벌레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훼손입니다. 또 사람들이 한 절을 찢어버린 인위적인 훼손도 있고요. 인위적인 훼손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면에 쓰인 권자인 경우 한 절을 찢어버리고 다른 것을 쓴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면 권자라면 뒷면은 분명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적었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려할 상황은 자연적인 훼손입니다. 벌레나 쥐에 의한 훼손은 확실히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황 권자를 많이 살펴본 사람만이 이것이 벌레로 인한 훼손인지 인위적인 훼손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벌레로 인한 훼손, 즉 자연적인 훼손이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황의 권자를 굴에 숨겼을 때 한 페이지씩 숨긴 게 아니라 무더기로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장의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이 훼손되었다면, 그 권자 밑의 다른 권자에도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이 훼손된 흔적이 같을 것입니다. 세 번째 권자, 네 번째 권자도 훼손된 부분이 같겠지요.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권자의 훼손된 부분을 대조하여 벌레나 쥐로 인한 훼손이 전부 몇 페이지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후 총 몇 페이지가 훼손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는 돈황 권자를 많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권자는 마구 뜯겨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우리가 산 돈황의 마이크로필름은 한 장 한 장씩 찍은 것으로 한 부씩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장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훼손된 모든 권자들을 우선 총체적으로 기록부터 하기를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권자가 1행, 2행, 3행, 4행, 5행이 훼손되었고, 다른 권자는 6행, 7행, 8행, 9행, 10행이 훼손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행, 2행, 3행, 4행, 5행이 훼손된 모든 권자를 한 곳에 모아 놓고, 6행, 7행, 8행, 9행, 10행이 훼손된 권자를 다른 쪽에 모아 놓은 다음, 대조해 보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가 나와 있으니 컴퓨터에 입력하면, 어느 글자가 훼손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권자가 훼손되었고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연구는 제가 파리에서 연구할 때보다 훨씬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

학의 발전으로 가능한 일이기,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항주杭州에 있는데 마이크로필름이 한 세트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훼손된 권자 하나를 위해 북경에 가서 모든 권자를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훼손 부분이 인위적인지는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단면 권자들입니다. 하지만 훼손된 권자를 후세 사람들이 보충해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후에 권자를 얻은 이가 훼손된 부분에다 종이 한 겹을 붙여 한 단락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충한 부분은 원본과는 내용이 안 맞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충한 부분도 인정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보충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만일 현대에 와서 파리 국가도서관에서 보충했거나, 대영박물관에서 보충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唐 말기 혹은 오대五代 사람이 보충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唐 말기 혹은 오대(五代) 사람이 보충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보충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찾아서 베꼈을 테고, 따라서 훼손된 권자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원래 훼손되었지만, 보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보충한 부분은 원문에서 베낀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권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보충된 부분은 필사하는 이, 즉 필사생이 보충한 것입니다. 그들이 필사했지만 본인들이 쓴 내용은 아니었지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필사생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필사한 이들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이들은 대충 마음대로 보충해버려서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권자들은 정말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한 행의 연관성조차 찾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훼손된 부분이 보충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훼손된 부분이 이미 보충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세히 대조하고 보충된 권자의 위아래 문장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권자들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훼손된 권자를 후세 사람이 보충한 것으로, 후세 사람이 보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훼손되어버린 권자를 후세 사람이 보전하고자 한 경우인데요. 훼손된 권자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권자에서 마음대로 일부분을 뜯어다가 훼손된 권자의 지면 후반부나 앞부분에 보충한 경우입니다. 이런 보충은 제가 아까 말했던 가운데 부분을 마음대로 보충한 것보다 더 난잡합니다. 앞뒤로 마음대로 찢어내서 보충한 경우, 우리가 볼 때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역시 아주 심각한데요, 그 심각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훼손된 권자를 보충하기 위해 뜯긴 권자란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 부분이 별로 쓸모없는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뜯어온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아주 성가신 일입니다. 따라서 돈황의 권자를 연구하면서 좀 더 심오한 연구를 해야 할 때, 이렇게 임의대로 뜯어낸 권자를 보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항주杭州에서 열린 도장道藏 정리 회의에 초대받고 참가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도장道藏을 요약하려 계획하고 있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장道藏에도 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임의대로 복원해 버린 현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도장道藏의 판각본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현재의 도장道藏에는 없지만 돈황 권자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들은 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제가 얘기한 권자 정리 방법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고, 저는 대략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제가 있어도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난 너를 풀고야 말테야’ 하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3년, 5년이 지나야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저는 이미 실마리를 모색하여 그것을 모두에게 알려 주었고, 후세 사람들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 보지요. 아까 권자를 보충한 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도 있고 다른 시대의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시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唐대의 사람들이 육조六朝의 권자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권자의 글자인데요. 글자는 시대마다 각각 그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唐대 사람들이 복원한 육조六朝의 권자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육조 사람들의 당唐대, 오대五代, 송宋대의 사람들과 서체를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자의 글자들에서 당唐대의 사람들이 사경寫經할 당시 사용했던 규칙이 발견된다면, 그 권자는 당唐대의 사람이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권자에서 송宋대의 사람들이 사경할 당시 사용했던 규칙도 발견된다면, 송宋대 사람이 복원했다는 것이지요. 각 시대마다 서체의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고 부호, 구두점, 종이 재질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훼손된 권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극도로 어렵고 이해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실상 앞에서 말한 권자를 엮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는 권자가 뜯겨져 나가 그것을 다시 엮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무심결에 엮은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황 권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약간이라도 대충 보았다가는 오대五代, 송宋대 사람들이 엮은 권자들을 원래 권자로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황 권자는 한 장씩 엮어서 만든 것인데, 시간이 흘러서 풀로 붙인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권자들을 후세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권자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무심결에 엮은 것도 있고, 약간은 의도적으로 엮은 것도 있는데, 의도된 경우는 권자를 엮어 팔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자 앞부분에 큰 단락이 있는데 갑자기 작은 단락이 연결되어 어느 연대, 어떤 사람, 혹은 무슨 중요한 경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권자에서 떼어내서 조합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재 우리들이 글과 그림을 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절강浙江의 조맹부趙孟頫의 글이라든지, 특히 조趙부인의 그림을 많이 조작합니다. 조맹부의 그림이라면 그 그림 위쪽에 그의 낙인이 있어야

만 그것이 조맹부의 그림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맹부의 낙관 부분을 도려내서 합성한 그림 역시 조맹부의 작품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합성은 골칫거리입니다. 우리가 권자를 제대로 인식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즉 권자 종이의 질·먹의 색·낙관·서법 등의 각 분야를 종합해 보면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래 당唐대에 쓰인 권자를 당唐 이전에 쓰인 권자에서 글 한 줄을 빼내어 붙인 다음 수隋대에 쓴 권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종이의 재질, 먹의 색, 서법 및 권자의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자의 진위 문제는 권자를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당唐대의 관령官廳에 관한 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권자에는 또 당唐대 황제의 태어난 날, 죽은 날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황제가 언제 태어났는데, 그 황제의 생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돼지는 몇 마리 잡고 양은 몇 마리 잡았는지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 두 권자를 하나로 엮어 버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唐대의 정일품正一品, 정이품正二品과 일등一等, 이등二等과 같은 관직이 황제의 연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두 권자를 하나로 엮어 놓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명황唐明皇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누가 그 제사를 주관하는지, 그가 어느 날에 태어났고, 죽은 날은 언제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에도 원래 규칙이 있다는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두 개의 권자를 하나로 엮어버려서 엉망일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당唐대의 「백관지百官志」를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버려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후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엮은 것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唐대 이전 사람들이 마음대로 엮어 놓은 권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唐대 이전부터 이렇게 몇 권의 권자를 엮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란 것을 모두들 알고 있고, 그 권자가 그 스님의 것이라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자를 임의대로 엮었던 것입니다. 돈황 권자가 발견된 이후 골동품 상인들도 권자를 위조했는데 정말 엄청났

습니다. 골동품 상인들이 어떻게 위조했을까요? 예를 들어 그들이 우연히 권자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 뒤가 절반이 백지 상태이거나, 일 촌_ナ 혹은 이 촌_ナ이 비어 있다면, 그 종이를 잘라내어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그 골동품 상인들은 이것들을 당^唐대나 육조^{六朝}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이를 사용해 재질면에서는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가짜 권자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엮은 권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대^{五代}부터 생겨난 것으로 당^唐대에도 있었으나 드물었습니다. 돈황이라는 이 보물창고가 발견되고 골동품 상인들에 의해 위조된 후부터는 더 많아졌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권자 엮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한 자연적 훼손으로 인한 가짜 권자가 아닌, 의도적으로 엮은 가짜 권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권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 오늘날 우리의 마이크로필름 전부를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엮은 권자 몇 권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몇 백 권 몇 천 권의 권자를 보고 규칙을 찾아낸 후에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문제는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권자의 시대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사에서, 특히 서법 역사에서 필사하는 방법이나 방식 등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황 권자중 수^隋, 당^唐, 송^宋 사람들이 서법 차이입니다. 이는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육조^{六朝}, 당^唐대, 오대^{五代}, 송^宋대에는 많은 민간 습관이 있었고, 그런 민간 습관은 권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무 ‘목(木)’ 변, 재주 ‘재(才)’ 변, 손 ‘수(手)’ 변과 같은 이 세 가지 부수는 육조^{六朝}의 책에서는 종종 섞여 쓰여 보통은 ‘재(才)’ 자 로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 ‘목(木)’ 변에서는 점 하나를 빼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재(才)’ 자와는 달리 손 ‘수(手)’ 변의 꺾는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글자가 나무 ‘목(木)’ 변인지, 재주 ‘재(才)’ 변인지, 손 ‘수(手)’ 변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육조^{六朝} 시대에 통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많아지자 글자를 마음대로 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금(金)’ 자는 ‘전(全)’ 자로 써서 아래 두 점을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는 쇠 ‘금(金)’ 변과 완전할 ‘전(全)’ 변은 같았지만, 후에 와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전(全)’ 자는 가로획을 똑바로 그었고, ‘금(金)’ 자는 가로획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썼습니다. 그런데 흘려 쓰면 이 빼침 부분이 약하게 되어 그냥 가로획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金)’ 자와 ‘전(全)’ 자는 서로 혼용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글을 줄여 쓴 예도 있습니다. ‘오(烏)’ 자, ‘마(馬)’ 자, ‘조(鳥)’ 자는 종종 구분하지 않았고, 이 역시 당(唐)대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간략해서 쓰는 것은 서법의 특수한 현상입니다.

‘잠(蠶)’ 자의 경우, 위쪽은 ‘침(虺)’, 가운데는 ‘일(日)’, 아래쪽은 두 개의 ‘충(虫)’이 쓰여 있습니다. 육조(六朝) 사람들은 이 글자를 간단하게 ‘천(天)’ 자 아래 ‘충(虫)’ 자 두 개를 썼는데요, 심지어 ‘충(虫)’ 자는 한 개만 써서 ‘잠(蠶)’ 자 ‘蚤’ 자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약자(略字)는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문(門)’ 자는 세 개의 점에 하나의 꺾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두 개의 점을 찍은 후 세 번째 점을 꺾은 것이지요. 이 역시 당(唐)대에 생겨났습니다. 당(唐)대에는 이미 초서체와 약자(略字)가 정식으로 사경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글자체가 어느 왕조에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이 권자가 어느 시대 것인지도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골치 아픈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식(移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것을 오른쪽으로 써 넣고, 위쪽의 것을 아래쪽에 써 넣은 것입니다. 순수 문자학에서는 이식된 글자는 두 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황 권자에서는 한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물(物)’ 자는 소 ‘우(牛)’ 변에다 ‘물(勿)’ 자를 써 넣은 것이지만, 돈황 권자에서의 ‘물(物)’ 자는 ‘물(勿)’ 자를 먼저 쓰고 아래에 ‘우(牛)’ 자를 써 넣은 것입니다. ‘개(概)’ 자도 예로 들어 볼까요. 오늘날은 나무 ‘목(木)’ 변에다 ‘기(既)’ 자를 더한 것이지만, 돈황 당(唐)대 사람들은 ‘기(既)’ 자를 위쪽에 쓰고 ‘목(木)’ 자를 아래쪽에 썼습니다. 이것 역시 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에서도 이식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猶)’ 자인 경우 개 ‘견(犬)’ 자에다가 ‘추(酋)’ 자를 더한 것인데, 당(唐)대 사람들이 쓴 책에는 우두머리 ‘추(酋)’ 변에 ‘견(犬)’ 자를 적어 놓았습

니다. 「서경書經」에 보면 이 두 글자의 뜻은 다른 것으로, 개 ‘견(犬)’ 자에다가 ‘추(酋)’ 자를 더한 ‘유(猶)’ 자의 경우는 조사이고, 우두머리 ‘추(酋)’ 변에 ‘견(犬)’ 자를 더한 것은 ‘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爾雅·釋詁」). 하지만 돈황 권자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개 ‘견(犬)’ 변에 ‘언(言)’ 을 더한 글자는 개가 짖는 소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돈황 권자에서도 말씀 ‘언(言)’ 변에 ‘견(犬)’ 자를 더한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가 킁킁하고 짖는다는 뜻으로 ‘은(獫)’ 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식의 예로, 이런 글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약자略字 와 함께 돈황 권자에서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달릴 ‘주(走)’ 변과 쉬엄쉬엄 간다는 뜻을 가진 착(𨔵) 자는 혼용되었습니다. 원근遠近的 ‘원(遠)’에도 ‘착(𨔵)’을 쓰고, 조전손이趙錢孫李의 ‘조(趙)’에도 ‘착(𨔵)’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趙)’자는 ‘소(遭)’로 변했습니다. ‘좌(左)’자, ‘우(右)’자의 경우, 고대에서 ‘좌(左)’는 가로획을 왼쪽으로 기울여 썼고, ‘우(右)’자는 오른쪽으로 가게 썼는데, 이 두 글자도 구분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많이 있었고, 우리의 서법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초서체는 위진魏晉 이후에야 생긴 것으로 왕희지王羲之의 초서, 왕헌지王獻之의 초서, 위부인魏夫人의 초서들은 현재 우리 간체자의 기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드린 ‘문(門)’자의 경우 세 개의 점과 하나의 꺾음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왕희지王羲之의 글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자略字나 이식移植자의 경우에서 보면 이 권자들의 기원이 언제부터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후세 사람들도 옛사람들이 쓴 약자를 사용했으니까요.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문(門)’자 역시 점 세 개를 엮어서 완성했고요. 난蘭꽃을 나타내는 ‘난(蘭)’자는 점 두 개에 가로 선을 긋고, 그 아래에 세 개의 점과 하나의 꺾음으로 연결한 후 ‘간(柬)’자를 썼습니다. ‘간(柬)’자는 다시 ‘동(東)’자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판단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자의 시대를 확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를 근거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자에 이런 약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권자는 아주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권자에 약자가 나타난다면 가장 이른 시기는 언제인가 대략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돈황 권

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종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하는 많은 흔적들은 세심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요. 따라서 돈황 권자의 서법은 우리가 연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예에 대해 약간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돈황 권자 중의 자서(字書)나 운서(韻書), 특히 운서에는 종종 글자 아래 ‘정(正)’ 자나 ‘속(俗)’ 자가 쓰여 있으며, 어느 글자가 정자(正字)이고 어느 글자가 속자(俗字)인지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쓴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의 모든 권자에는 정자와 속자가 모두 있습니다. 저는 연구할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정자와 속자를 표로 정리해서 네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 아내가 도와주었고, 그 책 이름은 「돈황 운서 중 정자(正字)와 속자(俗字)에 관한 계보」입니다. 이 책에 근거하면 어떤 글자들은 당(唐)대 사람들이 이미 속자(俗字)로 인식했고, 어떤 글자들은 정자(正字)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당(唐)대 이전의 각종 서적 안에 나오는 글자체가 도대체 정자(正字)인지 속자(俗字)인지를 검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후대 간체자의 기원이나 옛 글자체의 근원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 쓰는 예악제도(禮樂制度)의 ‘예(禮)’ 자는 보일 ‘시(示)’ 변에 세로와 가로로 선을 그어 만든 글자로 사실은 중국의 고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한(漢)대부터 있었던 글자로 돈황 권자에 나오는 ‘예(禮)’ 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辭)’ 자는 원래 ‘사(辭)’ 자 인데, 반쪽이 ‘신(辛)’ 자이지만, 돈황 권자에서는 오른쪽에 ‘사(司)’ 자를 넣어 ‘𠄎’로 썼습니다. 사실상 하나는 간체자이며, 하나는 차용자로 서로 다르지만, 돈황 권자에서는 간혹 하나의 글자로 혼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자학에서의 자형(字形) 구조의 변천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기타 학술과의 연관성도 큼니다.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전국의 관(官) 인장에 쓰인 잘못된 글자를 고치자고 황제에게 청했다는 고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성고(城皋)’의 ‘고(皋)’ 자를, 어떤 사람은 ‘백(白)’ 자 밑에 ‘견(犬)’ 자로 썼고, 또 다른 사람은 ‘백(白)’ 자 밑에 ‘본(本)’ 자로 썼으며, ‘자(自)’ 자 밑에 ‘십(十)’ 자를 두 번 쓴 이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성고(城皋) 지역의 현관(縣官), 무관(武官), 순관(巡官)의 인장에 있

는 ‘고(擧)’ 자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관장에 나오는 이런 모순을 고치자고 황제에게 청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한자가 한漢대에 이미 어지럽게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따라서 육조六朝 이후에는 글자를 위조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 도장을 새기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자기가 새기는 인장의 글자는 한漢대의 인장을 본 판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漢대의 인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고대 서적 연구와 고대 문자 연구, 그리고 서예 연구와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돈황 권자는 이런 상황에서 딱 알맞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황 권자 이전의 통속적인 책, 위조된 책, 가짜 책들은 돈황 권자에서도 모두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황 권자 이후에 사용된 약자略字를 돈황 권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얘기는 벽화에 나오는 문서 자료입니다. 벽화에 나오는 문서 자료에 관해서 이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면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지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돈황 벽화에도 문서와 관련된 자료들이 보이는데, 대다수가 발원문發愿文으로 당시의 역사적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장희심張淮深의 전기는 돈황 벽화에 누구의 제함題銜이며, 무슨 관직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에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남편인지, 누가 누구의 부친이고 누가 누구의 처남이고 누가 누구의 장인인지 등등도 쓰여 있고요. 이런 제함은 종종 우리가 돈황 권자 경전을 아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돈황 권자에는 이 권자가 어느 칸의 어느 공주가 쓴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칸(왕), 어느 공주가 소장하고 있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여기 적힌 칸이나 공주는 우리가 역사 자료에서도 찾아 낼 수 있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찾아내지 못했고 돈황 경전 서문에만 있습니다. 돈황 경전의 서문을 가지고 역사적 자료들을 대조 확인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권자에 나오는 자료들을 증명한다면 권자들도 엮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황의 제함에는 관직과 작위, 칭호, 가문간의 관계 및 가족 관계, 친척 관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제함은 오대五代 사람이 70~80%를 차지하고 송宋대 사람들은 30~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조합해서 상당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요 목적은 문서와 경전 권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으로, 경전 권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전 권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원충부부출행도曹元忠夫婦出行圖’, ‘장의조부부출행도張議潮夫婦出行圖’에서 중국문화사와 중국회화사 그리고 많은 중국 역사 자료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황 권자 자료들에 나오는 내용을 이 두 그림에서도 찾아 볼 수도 있고요. 돈황 권자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돈황 당시의 허시회랑(河西走廊 - 중원에서 신강으로 통하는 길)의 사회, 정치, 경제 관계들을 설명해줍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 거대한 두 개의 벽화를 가지고 문서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황 벽화의 많은 것들은 돈황 문서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자료라는 점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지요. 오늘날 옛 사람들이 썼던 두건을 얘기할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황 벽화에서는 공양하는 사람이나 관리들이 쓴 모자에 두건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돈황 여인들이 화장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황무한당산액藥黃無限當山額’과 같은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얼굴은 ‘예황藥黃’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꽃술처럼 대단히 노랗다는 뜻입니다. 당산當山은 눈썹 사이에 꼭대기 부분입니다. 돈황 여인들의 화장하는 방법은 이마에 노란색을 사용해서 칠했기 때문에 ‘예황무한당산액藥黃無限當山額’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 벽화로 사집詞集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향로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신을 섬기는 향로는 손잡이가 있어서, 향을 태울 때 사람들이 이 손잡이를 잡고 걸었습니다. 이것은 청淸황실까지 존재했던 것이지만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날 큰 사찰에서나 매우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황 벽화에 나오는 남자들은 모두 이 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돈황 벽화 속의 이 모든 문물 제도에 관한 자료들로 돈황 문서의 내용물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돈황 벽화는 그저 벽화에 불과하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황 문서를 연구하는 우리들은 종종 벽화를 참고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겸사겸

사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돈황학에 대한 저의 개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몇 마디 안 되지만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황의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 벽화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대체적으로 당唐, 오대五代, 송宋 시기의 사회적 풍속과 예악제도禮樂制度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특히 송宋대 이전의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문서에 의존해야 합니다. 돈황 문서에는 전국戰國 시대 이전의 문서자료가 기록 되어있고, 전국戰國 시대 이후의 양한兩漢,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문서 자료는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 서적을 연구함에 있어서 돈황의 자료를 떼어 놓고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중국문화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풍속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돈황의 자료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학, 언어학, 심지어 회화繪畫나 양납糧納 관련 연구에도 돈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돈황은 중국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돈황 이전의 문물들은 돈황 안에서 볼 수 있고, 이후의 것들도 돈황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보면 돈황학은 앞으로 찬란히 빛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제가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건강이 허락 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록 : 돈황 - 위대한 문화의 보고

(발췌)

一 돈황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돈황은 오늘날 중국의 감숙甘肅성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신강新疆, 녕하寧夏, 청해青海와 가까운 현縣이다. 란주蘭州에서 북쪽으로 무위無威, 장액張掖, 주천酒泉을 거쳐, 가옥관嘉峪關을 지나, 옥문玉門현과 안서安西현을 거쳐 과주瓜州의 옛 성을 지나면 돈황에 이르게 된다. 돈황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옥문관玉門關이 있는데, 이 옥문관玉門關이란 이름은 타림 분지에서 호탄의 옥을 들여 온 데서 유래되었다. 옥문관을 나서면 서역과 통하는 - 고대 시기의 중국과 서방 세계를 연결했다고 해야 함 - 남북으로 된 두 개의 큰 대로가 있다. 이 길은 모두 천산남록天山南麓에 있는데, 하나는 로프노르(Lop Nor)호 늪지대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타림분지를 통해 서쪽으로 뻗어있다. 이 길을 통해 한漢나라의 비단 제품들이 멀리 떨어진 로마 동쪽에 있는 시리아까지 거래 되었다. 종이 역시 돈황, 옥문관을 거쳐 투르판을 지나, 사마르칸트, 페르시아를 거쳐 유럽에 전해졌다.

종이는 인류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타인은 만리장성의 봉수대에 서 종이에 술리국窰利國 문자로 쓰인 여덟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그드의 상인들이 쓴 개인적인 편지였다. 스타인은 이 편지 조각을 위즈너 교수(Professor Von Wiesner)에게 보냈고, 현미경으로 분석해 본 결과 마직물을 찢어 풀로 만든 후 그 풀로 종이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한漢 화제和帝 원흥元興 원년(기원 105)에 채륄蔡倫이 발명한 제지법과 같다. 스타인은 여러 가지를 근거로 그것이 2세기 중엽의 것이라고 판단했다(그의 저서 「서역고고도기西域考古圖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Serindia : Detailed Report of Exporation Central Asia and Westenmost China. Oxford, Clarendon Press. 1921). 이는 채륄蔡倫이 발명한 종이보다 45년이나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종이라 할 수 있다(예전의 스웨덴의 스벤 헤딘 Sven Hedin이 고대 누란왕국 - 현

재의 쿠무타거 -에서도 종이를 발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검토해 본 결과 스타인의 것에 비해 오십 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August Courady의 「스벤 헤딘이 누란에서 발견한 중국어로 된 책과 기타 물품」을 참고로 읽어보면 알 수 있다. Die chinesischen und sonstigen Klein-funde Sven Hedin in Lou-lan). 소그드 · 강거康居와 같은 나라의 상인들이 종이를 사마르칸트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다시 유럽으로 유입되었다(요사오(姚士鰲)의 「중국 종이 기술의 유럽 유입에 대한 조사」, 「보인학지輔仁學志」 1권 1기 참고). 또한 스타인은 돈황에서도 한漢대의 권자에서 뜯겨진 종이 세 장을 얻었는데, 그는 이것을 2세기에 쓰인 것이며(샤반느 Ed. Chavannes 교수의 「스타인이 동 투르키스탄에서 발견한 중국어로 된 문서」 Les Documents Chinois, découverts par Aurel Stein dans les sables du turkestan Oriental의 문장 참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아랍인이나 독일인 혹은 이탈리아인이 종이를 발명했다는 유럽인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뒤엎는 것이었다. 종이는 비단과 비슷한 경로로 상인들이 다니던 길을 따라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그 길은 기원전 138년(한漢 무제武帝 건원建元 3년 계묘년, 일설에 의하면 126년으로 무제武帝 원삭元朔 3년 을묘년이라고도 하며, 이는 귀년歸年이다) 및 기원전 115년(한漢 무제武帝 원정元鼎 2년 병인년)에 장건張騫이 서역으로 처음 건너간 길이며, 기원전 104년(한漢 무제武帝 태초太初 원년 정축년)에 이사貳師 장군이 광리李廣利가 대완大宛을 공격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기원전 2년(한漢 애제哀帝 원수元壽 원년 기미년)에 인도 불교 경전이 대월지大月氏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길이기도 하며, 서기 629년(당 태종太宗 정관貞觀 3년 기축년)에 인도로 건너간 지 17년 만에 경전을 가지고 귀국한 자은慈恩 대사 현장이 오고 간 길이기도 하다. 또한 마르코 폴로가 로브사막을 지나 서쪽으로 간 길이기도 하다.

돈황은 역사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변방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문화교류의 장이기도 했는데, 특히 당唐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과 서역 교통의 중추였으며, 종교가 아주 번성했던 성지였고, 문화가 흥성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돈황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옥문관玉門關을 나르면 한漢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서역 36국’이 있다. 이곳은 중국에서 - 중앙아시아라고 해야 함 - 가

장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태평성세를 이루었을 때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물이 번창하였으며, 또한 시기가 어지러울 때에도 변방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흥성과 쇠퇴 및 변화가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돈황현은 북위 41도, 동경 94.7도 쯤에 위치하고 있다. 한랭 기후로 매년 평균 5개월이 겨울이며, 매년 10월에 결빙해서 3월 말에 해빙한다. 강우량은 매우 적는데, 최고 강우량은 95.4mm, 최저 강우량은 8.6mm를 나타낸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특히 남서풍이 가장 많이 불고, 가을에는 남서풍과 북동풍이 분다. 최고 기온은 섭씨 44.1도로 매년 7월과 8월 사이에 나타난다.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로 매년 12월과 1월에 나타난다. 모래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데 남서풍이 불 때는 몇 척 앞의 사람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소록강疏勒河은 돈황의 북쪽을 가로질러 옥문관을 지나 하라哈拉호에 모여든다. 이 강은 돈황과 관계가 깊다 - 하지만 막고굴 천불동의 관계가 가장 큰 것은 당 하覚河라고 해야 함, 당하는 돈황 이남 지역의 천불동의 남쪽에 흘러들어 돈황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함 -. 이 외에 천불동 아래쪽을 흐르는 더 중요한 하천이 있는데, 천불동 식수의 근원이다. 이 하천은 너비가 약 20장丈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면서 사막으로 유입되어 땅속으로 스며든다. 냇가의 동쪽 언덕은 높이가 10장丈이고 서쪽 언덕은 1장丈에서 20여 장丈으로 높이가 같지 않다. 서쪽 언덕 절벽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굴들이 들어서 있다.

가옥관嘉峪關 서쪽을 나서면 대평원이 나오는데 이곳에 세 개의 현縣, 즉 옥문玉門현, 안서安西현, 돈황敦煌현이 있다. 돈황현 근처에 기린 산맥이 있는데, 돈황현 남쪽에 있는 삼위산三危山 역시 기린 산맥에 속한다. 삼위산 서남쪽 돈황현 방향으로 약 10리里 쯤 떨어진 곳에 있는 명사산鳴沙山은 높이가 20여 장丈이고 길이가 50리里이다. 사람과 말이 산 밑으로 내려올 때 모래끼리 마찰하여 웅장한 소리를 낸다하여 명사산鳴沙山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돈황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춘추 시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춘추 이전 서북 지역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문헌에서는 돈황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주周나라 때의 금문金文에도 천수天水 이동 지역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갑골문에서도 기산岐山 이서 지역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고란皋蘭 이서 지역의 자

료가 있겠는가? 「우공禹貢」에 나오는 유사流沙, 삼위三危가 이곳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돈황은 고대의 과주瓜州 지역으로 육혼陸渾이라고도 한다. 춘추 시대에 진秦나라에 속해 있었고 강羌족과 용戎족의 거주지였다.

「좌전左傳」 소昭 9년에 ‘선왕이 도울櫛杙을 사예四裔에 거주시켜 이매魑魅을 막게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두예杜預가 이에 주를 달아 설명하기를 과주瓜州는 오늘날의 돈황이라고 했다(「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의하면 돈황군 돈황현에 대해 ‘두림杜林이 돈황을 과주瓜州라 여겼고, 맛있는 과瓜果가 생산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예杜預는 두림杜林을 따른 것이다). 또 양襄 14년에 범선자范宣字가 용戎족 구지駒支를 잡을 생각으로 조정에서 꾸짖어 말하기를 “이보시오! 강옹씨姜戎氏, 예전에 진秦나라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 영토를 탐내어 오리吾離를 과주에서 내쫓았고.....”라고 하자, 이에 답하기를 “옛 진秦나라 사람들은 수가 많음을 믿고 우리 땅을 탐하여 우리를 용戎에서 몰아내었을 때, 혜공惠公은 덕을 품어 우리에게 모두 사악四岳의 후손들이라고 했소.” 라고 했다. 이에 대해 두예가 주를 달기를 ‘사악四岳의 후손들은 모두 강羌 씨였고, 윤允 씨도 있었다. 과주瓜州 지역은 오늘날의 돈황이다’라고 했다. 이 두 이야기는 「좌전左傳 희공僖公 22년」에 나오는 ‘가을에,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육혼陸渾의 사병을 이끌고 이천伊川으로 갔다’ 와 일치한다. 두예는 이에 대해 ‘윤씨 성을 가진 용족 사람들은 육혼陸渾에서 살았고,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이곳을 탐했다.’고 주를 달았으며, 육혼陸渾은 돈황이라고 했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서는 홍의군弘衣郡 육혼陸渾에 대해서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육혼陸渾의 용족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썼다. (진秦, 진晉 이 두 글자는 원래 ‘春秋’이지만 왕선겸王先謙에 의해 바뀌었다). 또한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서는 ‘진秦나라의 서쪽에 금성金城, 무위武威, 장액張掖, 주천酒泉, 돈황敦煌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진국 시대에는 월지月氏족이 살고 있었다. 후에 월지는 오손烏孫의 공격을 받아 쫓겨났고 오손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었다.

돈황은 한漢 초기에는 흉노족의 곤사왕昆邪王과 휴도왕休屠王의 땅이었고(「한서지리지 漢書地理志」를 보면 알 수 있다),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는 무제武帝의 영토가 되었으며(「지지地志」), 원수元狩 2년(기원전 121년)에 무위武威와 주천酒泉,

이렇게 두 개 군郡이 처음 세워졌다. 원정元鼎 6년(기원전 111년)에 장액군張掖郡, 돈황군敦煌郡이 세워졌고, 여섯 개의 현縣, 즉 돈황敦煌, 명안冥安, 효곡效谷, 연천淵泉, 광지廣至, 용륵龍勒으로 통치되었으며, 가구 수는 만 천이백 가구이고, 인구는 만 팔천삼백삼십오 명이었다. 돈황은 현縣이기도 하다. 왕망王莽 시기에 돈황군敦煌郡을 돈덕군敦德郡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縣이름도 돈덕정敦德亭으로 바꾸었다(왕망王莽 초기에는 돈황敦煌을 문덕文德으로 바꾸었다. 「한간漢簡」참고). 후한後漢은 전한前漢을 따랐다. 「후한서군국지後漢書郡國志」에서 돈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돈황군은 여섯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칠백사십팔 가구, 칠만 구천백칠십 명의 인구가 있다. 돈황은 옛 과주瓜州지역으로 맛있는 과瓜果가 생산된다. 명안冥安, 효곡效谷, 명천拼泉, 광지廣至, 용륵龍勒과 옥문관玉門關이 있다.

전우典牛 시기에 돈황 군郡에 열 두 개의 현縣이 있었으며 최대 규모였고, 한漢 시기보다 두 배로 증가했고, 수隋대에는 현縣이 세 개가 있었다.

돈황군은 세 개의 현, 즉 돈황敦煌, 상악常樂, 옥문玉門을 관할하고 있다. 가구 수는 칠천칠백칠십구 가구이다.

당唐대에 들어서는 사주沙州에 속했다. 「신당서지리지新唐書地理志」를 보면,

사주沙州 돈황군敦煌郡은 두 개의 현, 즉 돈황敦煌과 수창壽昌으로 되어있다. 가구 수는 사천이백육십오 가구이고, 만 육천이백오십 명의 인구가 있다. [돈황현 남쪽에 명사鳴沙가 있었는데, 고대에는 사주沙州라 불렀다. 「돈황록敦煌錄」에 ‘사주沙州 남쪽에는 막고굴이 있는데, 사주沙州에서 25 리 떨어져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막고굴기莫高窟記」에는 ‘사주沙州 동남쪽에서 20 리 떨어진 곳에 삼위산三危山 서쪽이 있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당唐의 사주沙州는 천불동에서 25 리 떨어져 있고, 천불동 서북쪽에 있다. 사주沙州는 오늘날 불야사佛爺寺 일대, 즉 사주沙州 현 지역으로 추측된다. 또한 량주凉州의 장준張駿이 돈황에서 사주沙州를 설

치한 것도 이를 따른 것이다. 또한 수창壽昌은 한漢 나라의 용륜龍勒현으로 오늘날 돈황 서남 지역에 있는 남호점南湖店이다.]

군郡의 통치가 적게 미쳤고, 송宋 중엽 이후 서하西夏가 점유했다. 명明대의 쇠국정책으로 인해 서역과의 교류가 끊어졌다가, 청淸대에 이르러서야 서쪽 길이 뚫려서 청淸나라 사람들이 신강新疆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가 되었다.

당唐 천보天寶시기에 돈황현에 13개의 향(鄉) 즉, 돈황敦煌, 홍지洪池, 현천懸泉, 막고莫高, 신사神沙, 용륜龍勒, 옥관玉關, 홍운洪閨, 효곡效谷, 총화總化, 수창壽昌, 평강平康, 자혜慈惠가 있었다(P. 2738호와 P.2803호를 참고. P. 2728호에 따르면 10개의 향鄉에는 적심赤心은 있으나 홍지洪池, 현천懸泉, 총화總化, 수창壽昌은 없음). 고대 현縣에는 향진鄉鎭이 많았다. 그 시기에 사찰을 많이 지었고 번성했는데, P. 2738호에 의하면 용흥사龍興寺, 대운사大云寺, 보은사報恩寺, 영수사靈修寺, 성광사聖光寺, 건원사乾元寺, 정토사淨土寺, 개원사開元寺, 영안사永安寺, 안국사安國寺, 대구사大口寺, 보광사普光寺, 금광명사金光明寺, 영도사靈圖寺, 연사連寺, 주가란야周家蘭若, 관란야官蘭若, 안순어란야安淳於蘭若……보란야保蘭若, 락가란야樂家蘭若 등과 같은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경전 권자의 제기題記에 나오는 사찰 이름들을 참고하면 이는 믿을 만하며, 당시 불교가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황 권자들을 보면, 당唐 시기에 돈황에는 12 곳 혹은 20 곳의 경승지가 있었으며, 시인들이 그 곳의 경치를 찬양한 것을 알 수 있다. P. 2748 권자의 뒷면에 「사주돈황이십영沙州敦煌二十咏」이 있다. 그 스무 곳의 풍경지는 삼위산三危山, 백용퇴白龍堆, 막고굴莫高窟, 이사천貳師泉, 악와지천마渥洼池天馬, 양관수陽關戍, 수정당水精堂, 옥녀천玉女泉, 슬슬감瑟瑟監, 이묘李廟, 정녀대貞女臺, 안성오安城襖, 묵지墨池, 반벽수半壁樹, 삼찬초三攢草, 하발당賀撥堂, 망경문望京門, 상사(相似樹, 착벽정鑿井壁, 분류천分流泉이다. 그 시기는 대중大) 4년이다.

송宋 이후는 이 책과 관련이 적은 관계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二 돈황학

(一) 막고굴莫高窟 경전 권자의 발견

막고굴의 지세는 남고북저형이다. 남쪽 바위 끝에 절이 있는데, 그것을 상사上寺라고 한다. 상사上寺의 북쪽에는 중사中寺가 있다(상사上寺와 중사中寺는 원래 하나였으나, 후에 둘로 나뉘었다).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굴에 또 하나의 사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사下寺라고 한다. 상사上寺와 중사中寺는 라마들이 거쳐하던 곳이었고, 하사下寺는 도사들이 거쳐하던 곳이었다.

막고굴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송宋 때 서하西夏의 난으로 천불동 하사下寺 승려들이 타지로 도망가면서 경전 권자와 불상 및 기타 서적들을 하사下寺 옆 석굴군 북쪽과 가까운 큰 굴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이 굴이 바로 장대천張大千 동굴 제 151호인데, 원래 당唐 대중大中 5년에 승려 홍변洪辯이 만든 것이다. 현재 뒤쪽에는 삼층으로 된 누각이 있으며, 동굴 자체는 'T'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는 막고굴에서 흔히 보이는 양식이다. 통로 입구는 너비가 1장丈 2척尺 7촌寸, 길이가 2장 2척 8촌이며, 높이는 약 2장이다. 굴을 들어가면 길이가 5장 2척이고, 너비는 4장 9척, 높이는 약 4장이다. 동굴에서 안으로 2장 2척을 들어가면 평지이고, 여기에서 향을 피워 불공을 드렸다. 그 뒤쪽으로 3장 규모의 감실龕室이 있는데, 그 높이가 1척 3촌, 길이는 2장이며, 너비는 2장이다. 옆으로 5척 너비의 길이 있고, 좌우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다.

이 동굴 통로 북쪽에는 땅 속으로 3척 파인 곳에 너비가 2척 5촌, 높이가 4척에 달하는 통로가 있다. 뒤쪽에도 굴이 있는데, 그 굴은 너비가 9척 5촌, 높이는 6척 5촌에 달하며,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9척 3촌에 달한다. 동굴 벽에는 사방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중 남녀의 모습이 각각 하나씩 그려진 벽화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옷을 입은 모습이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이는 천불동에서는 보기 드문 작품 형태이며, 색채와 그 모습을 보면 당唐나라의 그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이곳에 경전 권자와 불상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비어 있

다. 송宋 시기 정도에 승려들이 경전을 옮긴 후, 흙과 돌로 동굴을 막아 흙으로 칠한 다음,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린 것으로, 현재의 훼손된 형태로 볼 때 이는 송宋 시기의 그림임이 분명하다.

송宋 시기에 이 굴이 폐쇄된 후 도피했던 승려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후세 사람들도 이 동굴들에 대해 몰랐으며, 이 동굴들 속에 이렇게 많고 진귀한 세계적인 보물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몰랐다. 그러다가 광서光緒 25년 4월에 비열하기 그지없는 왕王 도사에 의해 열리게 되었다.

왕 도사의 이름은 원록元籙이고 호북湖北 마성麻城사람이다. 그는 처음에는 숙주肅州의 순찰군 졸병이었으나, 군대를 나와 할 일이 없어 도사가 되었다. 돈황에 온 후 돈이 없고 머무를 곳이 없어서 143호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막고굴莫高窟 사원은 홍교紅教 라마승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변경番經을 읽었다. 왕원록만 도교 경전을 읽을 수 있었고, 중원의 언어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예불을 부탁했다. 이렇게 장사가 점점 잘 되자 양楊모 씨를 고용해서 사경寫經을 시켰다. 양모 씨는 151호 굴 통로에 책상을 놓고 벽을 기대 앉아 사경하였다. 그는 사경하다가 쉬는 시간에 대담뽕을 사용한 담배를 피웠는데, 피우다 남은 담배꽂초를 벽 사이 균열된 곳에 쑤서 넣곤 했다. 하루는 담배를 꽂초를 길게 남겨, 그것을 예전대로 벽 속에 쑤서 넣었다. 그런데 담배꽂초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손으로 벽을 쳐 보니 벽 속이 비어 있는 소리가 났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왕 도사에게 알렸다. 왕 도사는 한밤중에 양모 씨와 그 벽을 부셨고, 그 벽 안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사람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그 문은 흙과 돌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 내니 작은 통로가 나타났고, 그 안에 굴이 있었다. 그 굴은 바깥 굴보다 작았으며, 약 1장정도(실체로는 9척)이었다. 그 곳에는 아주 많은 하얀 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그 천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천으로 권자 열 권을 싸고 있었고, 불교 깃발과 수상(부처님 모습을 수놓은 것)들이 하얀 천 아래 깔려 있었다. 광서光緒33년 「삼층로三層樓 재건에 관한 공덕비」(사실 목판임)에 보면 ‘26년에 굴을 파 보니, 그 안에 불전을 숨겨 놓았고, 동상이 가득 했다, 측면에 있는 비碑에 당唐 대중大中 때 승려 홍변洪辯이 세웠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굴에 있었던 물품 목록에 따르면 동상이 상당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동상銅像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왕도사묘지王道師墓志」에 의하면 광서光緒 25년의 일).

굴이 발굴된 후 왕 도사는 성에 있는 각 유지들을 초청하여 그것들을 보여주었으나, 유지들은 그 가치를 잘 몰랐다. 그들은 왕 도사에게 그 불경들이 밖으로 반출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굴 안에 잘 보존하라고 당부했다.

당시의 돈황 현장縣長은 이름이 왕종한汪宗瀚이고 자字가 율암栗庵이었으며, 호북湖北사람 이었다. 그는 고대 문물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왕 도사에게서 약간의 사경 권자와 그림 및 불상을 얻었다. 3년 후인 광서光緒28년에 소주蘇州에서 감숙학대甘肅學臺를 맡고 있던 엽창치葉昌熾가 고대의 물건들에 흥미가 있어 왕종한汪宗瀚에게 물색을 부탁하였고, 왕종한汪宗瀚은 송宋 건덕乾德 6년에 만들어진 수월관음상水月觀音像 및 사경권자본과 범엽본梵葉本 각각 한 권을 엽창치葉昌熾에게 구해 주었다(「어석語石」 1권 29페이지). 엽창치葉昌熾는 감숙甘肅의 번대蕃臺 관청에 고대의 물건들을 운반해서 잘 보존해야한다고 건의했지만, 운송비를 따져 보니 은자 5~6천 냥 이나 들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광서光緒 30년 3월에 돈황 현장縣長 왕종한汪宗瀚에게 돈황 경전 권자와 그림 및 불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명했다. 그 결과 왕 도사가 이 보물 창고를 벽돌로 차단하게 된 것이다.

(二) 경전 권자의 약탈과 청淸 정부의 권자 수합

왕 도사는 상당한 기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돈황의 유지들이 그 보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자 경전 권자 한 상자를 싸들고 주천酒泉으로 가서 안숙도安肅道 도대道臺인 정동廷棟에게 바쳤다. 정동은 만주사람으로 그 권자들의 서법이 자신보다 못하다며 그 권자들을 우습게 봤다. 왕 도사는 다시 한 번 벽에 부딪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가옥관嘉峪關의 세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벨기에 국적의 제국주의자였는데, 그는 귀국하기 전 정동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고, 정동은 왕 도사에게 받은 경전 권자의 일부분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 벨기에인은 신강新疆에 간 후 정동에게서 얻은 권자를 신강新疆의 장경長庚장군(그 역시 만주인이었음)과 번藩 도대道臺

에게 선물하면서 돈황에서 그 권자를 얻게 된 상황을 말해 주었다. 이때 신강新疆에 있던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돈황의 예술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령 인도정부의 명을 받아, ‘고고학’이란 명분으로 신강新疆을 감찰하러 간 스타인(Sir Aurel Stein)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헝가리 사람으로, 신강新疆을 두 번째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고대 문자와 외국 문자로 쓰인 서적들이 돈황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돈황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스타인에게 돈황 일대는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고향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헝가리 지질 조사소 로치(Professor de Loczy) 소장으로, 감숙甘肅성에서 지질학 탐험을 하는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다. 로치는 1879년(光緒 5년)에 돈황을 방문해서 천불동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석굴에 있던 아름다운 벽화와 소장들에 대해서 스타인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스타인은 이를 계기로 1907년(돈황 석굴이 발견된 지 8년 후)에 돈황으로 출발했다. 그는 우선 만리장성 일대에서 목간木簡을 수집했다. 5월 21일, 그는 황량하고 적막한 들판에 텐트를 세우고 장기간 묵을 준비를 했다. 그는 고대의 서적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권자를 스님에게 보여주면서 경전들이 숨겨진 석굴을 방문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그 석굴은 이미 봉해진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고대 서적을 발견한 왕도사를 만났으나, 그 왕도사가 대단히 영민하고 속을 헤아리기 어려운 적수란 걸 눈치 챘다. 이 제국주의 문화 스파이는 돈으로 왕도사를 매수하려 했다. 하지만 왕도사는 종교적인 애정이 있었고, 게다가 그 권자들을 넘기게 되면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될까 두렵기도 했다. 왕도사의 이런 상황 때문에 스타인은 그를 돈으로 유혹할 수가 없었다.

후에 이 교활한 제국주의 분자는 다른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현장이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 온 고사를 인용하면서, 그가 현장의 족적을 따라 인도에서 험준한 산을 넘고 황량한 들판을 지나 겨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받은 신화적인 말들을 보태서 왕도사를 속였다. 더불어 신강新疆에서 데려온 보좌관 장蔣모씨를 통해 왕도사와 협상했다. 그는 거금을 들여 계약을 성공시켰고, 결국 왕도사는 굴의 문을 열었다. 이 문화 스파이는 왕도사가 들어 주는 희미한 등불 아래, 높이 10피트에 달하는 권자 더미를 보게 되었는데, 약 500입방피트에 달

하는 보물이었다. 그는 동굴에서 몇 꾸러미를 새로 지은 불당으로 옮겨와 장막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 높이 1피트, 길이 20야드 이상인 권자들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다. 처음에 권자들을 숨겼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종이 재질이 단단하고 질긴 권자들을 한 꾸러미씩 왕 도사로부터 가져 왔다. 산스크리트 문자로 쓴 것, 투르키스탄 불교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각종 언어로 쓰인 불경, 인도 힌두 언어로 쓰인 것, 중앙아시아의 각종 문자로 쓰인 것, 각종 방언으로 쓰인 기타 종교 경전과 각종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 고대 그림들을(명주 혹은 천이나 종이 위에 그린 그림) 짙은 무색의 질긴 천도 있었고, 아름다운 화초가 그려진 비단(장식용)과 아름다운 불상이 그려진 얇고 투명한 비단 깃발 등도 있었다. 이것들은 색깔이 조화로웠고, 새 것처럼 선명했다. 또한 종이에 그려진 그림, 조판 인쇄품, 인물화가 그려진 비단, 꽃이 그려진 직물, 카펫, 견직물, 수가 놓아진 불상 및 각종 장식용 비단 제품도 있었다. 중국글자로 된 불경과 유교경전, 자서(字書), 운서(韻書), 「노자(老子)」, 함통(咸通) 9년의 인쇄본, 마니교 등의 종교 경전 및 각종 종교와 관련된 종이 조각들도 있었다. 또한 티베트인이 중국 서북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가지고 들어온 티베트 문자로 된 불경도 있었다. 한 밤중에 장모 씨는 이런 권자 꾸러미를 장막으로 옮겨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7일 밤을 연달아 옮긴 것으로 세 사람은 이를 비밀로 하였다. 이렇게 옮겨 온 물건들은 점점 무거워져 차량으로도 운반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반동적인 봉건 정권은 우둔했고, 왕 도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국주의 강도는 우리의 국보를 약탈하여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16개월 후, 서적이 가득 채워진 24개의 상자와 그림, 자수품 및 기타 미술학적인 유물들이 가득한 5개의 상자는 모두 런던에 있는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내가 1937년 봄에 대영박물관을 참관했을 당시, 이 보물들은 득의양양하게 박물관에 높이 걸려 있었다. 이 몇몇치 못한 약탈행위에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타인은 최초로 돈황의 보물들을 약탈해 간 자이다. 독자들이 이 제국주의 강도 스타인의 행위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가 약탈해 간 각종 예술품들과 서적 및 그림들을 이 책에 기재하고자 한다. 그의 약탈 행위에 대한 자백서는 그가 쓴 「서역고고도기(西域考古圖記)」에 나와 있다(Serindia :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 in Central Asia and Westernmost China, volumes V.

Oxford Clarendon Press , 1921). 서적과 그림들에 관한 자세한 항목들은 이 책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으며, 부록으로 「천불동도록千佛洞圖錄」이 첨부되어 있다(The Thousand Buddhas).

이 제국주의 강도는 1914년에 세 번째 범죄 활동을 하러 우리나라에 왔고, 돈황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돈황으로 가는 길에 신강新疆에서 적지 않은 양의 권자를 얻었는데 그것들은 석굴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돈황에 도착한 후 그는 또 돈으로 유혹하는 낡은 수법으로 왕 도사로부터 육백여 권의 불경이 들어있는 상자 다섯 개를 얻어냈다.

스타인은 1909년 런던으로 돌아간 후,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 하에 그 자료들을 정리했다. L. Giles가 1914년에 목록을 완성했다. 그 이름은 British Museum Guide to an Exhibition of Paintings, Manuscripts, and other Archeological Object Collected by Sir Aurel Stein, K. C. I. E. in Chinese Turkestan London 이다. 그 중 대부분이 불경이며, 일본학자 야부키(Rev. K. Yabuki)의 연구에 의하면 그 중 많은 것들이 이전 사람들이 기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나 산실된 작품들이라고 한다(이 목록은 라복장羅福襄이 일부분을 번역한 적이 있으며 북경대학 「국학계간國學季刊」 제 1 권에 기재되어 있다. 향달向達이 쓴 「런던소장돈황권자왕안목록倫敦所藏敦煌卷子往眼目錄」 참고, 「도서계간圖書季刊」 복간 1호, 4호에 수록). 그는 이 자료들을 다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다양한 내용의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한漢대 이후 돈황이 각 지역과 각 민족 및 각종 신앙의 중요한 교류의 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많은 경전들로 천불동과 성지로서의 돈황 사막의 종교 생활이 거의 중국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② 역사, 지리 및 기타 분야에서의 중국에 관한 지식들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적지 않은 양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몇 백 편의 문서를 통해 그곳의 생활 상태와 사원의 조직들을 알 수 있는 빛과 같은 희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또한 이 문서들 가운데 함통咸通 9년(868년)에 판각본으로 만들어진 경전 권자가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조판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그 속 표지

에 나타난 완벽한 인쇄 기술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인쇄술이 발전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고대시기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각종 종교들의 상황들을 살펴 볼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서와 티베트의 문서 및 인도의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스타인은 이러한 각종 문서들로부터 역사학, 지리학 및 언어학에서의 중요한 점을 이끌어 내어 간단하게 정리했다. 그는 황해에서 아드리아해에 이르는 곳의 민족들과 언어의 신기한 유물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동방 · 남방 · 서방, 이 세 지역이 신기하게 연결되는 아시아의 합류 지점이 바로 돈황이다.’라고 했다. 다른 것들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스타인이 약탈해 간 경전 권자들은 현재 모두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칠천 권이 넘는다. 대다수의 돈황 벽화와 그림 및 기치(旗幟)들은 인도에 있는 뉴델리 중앙아시아 고대문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New-Delhi Central Asia Antiquities Museum). 앤드류(F. H. Andrews)가 편집한 ‘Catalogue of Wallpaintings from Ancient Shrines in Central Asia and Sistan’과 웨일리(A. Waley)가 편집한 ‘A Catalogue of Paintings Recovered from Tunhuang by Sir A. Stein Preserved in the Sub-department of Oriental Prints and Drawing in the B. M. and in the M. of Central Asian Antiquities’가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스타인이 약탈한 이 장물들을 가지고 런던에 도착한 후, 황실지리학회에서 한 차례 보고를 했고, 그 보고는 유럽 학술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시기 프랑스의 한(漢)학자들의 야심 또한 영국 제국주의자 못지않았다. 때마침 동방으로 원정을 떠났던 폴 펠리오(Paul Pelliot) 역시 오래지 않아 돈황에 도착해 중사(中)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 편으로는 왕도사와 친분을 쌓으면서 뇌물을 주고 경전 권자를 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하사(下)사에 가서 경전 권자를 고르는 데 사용했다. 남은 시간에는 탐험대원 중 한 명 이었던 샤를 누에트(Chales Nouette)와 막고굴(莫高窟) 석굴에 있던 소상과 벽화를 몰래 촬영했다. 후에 그는 이것들을 편집해서 간행물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1924년에 파리에서 「돈황도록(敦煌圖錄)」(Les Grottes de Tuuen Hauang)을 발간했는데, 이 도록은 375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 여섯 권짜리 도록으로 콜로타이프 인쇄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돈황 벽화

및 소상의 보존과 관련된 완전한 사진집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진들 중 많은 것들을 현재로선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촬영 이후 사람들이 훼손해 버렸기 때문이다.

펠리오는 한학에 대해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아는 것도 많았다. 그는 왕 도사에게 남아있던 것들 중에서 한문으로 된 것들을 골라내었다. 또한 흥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언어학, 고고학 및 기타 분야의 서적들 중에서도 한문으로 된 서적들을 한 꾸러미 당 1원보(약 50 냥에 해당함)에 구입했다. 이렇게 약탈한 것들은 파리로 운반해서 국립도서관사본부에 소장했다. 나는 1935년에 약 천 권의 권자를 훑어보면서 유가 경전, 운서韻書, 자서字書, 「노자老子」 등을 촬영하여 제작하였고, 또한 문학, 역사, 지리와 관련된 권자들을 베껴 썼으며, 유가와 도가 경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참으로 방대한 양을 가진 중국 문화의 보고였다. 나는 런던에서 베껴 쓴 것들까지 합해서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과 「돈황경적교록敦煌經籍校錄」 및 「잡록雜錄」을 편찬해냈다. 펠리오가 얻은 회화들은 파리의 기메 국립 아시아 미술관 Musée Guimet (불화와 불상)과 루브르 박물관 Musée du Louvre (판화, 자수공예품, 회화 류)에 소장되어있다.

1909년, 펠리오는 1500권의 보물을 북경에서 파리로 옮겨왔는데, 당시 북경에는 펠리오가 중국어로 쓰인 많은 중요한 권자들을 가져간다는 소문들이 돌았고, 나진옥羅振玉 같은 사람들이 그 일부분을 봤다. 청淸 정부는 그제야 그 소문에 놀라서 규명 조사에 나섰다.

펠리오가 떠난 후에 왕 도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값진 경전들을 두 개의 통에 담아서 ‘전경통轉經桶’이라 이름 짓고, 나머지 권자들은 굴에 그냥 놔두었다. 이때 청淸의 학부學部는 정식으로 6천 냥의 경비를 들여 돈황 권자 수습에 나섰다. 청淸 정부는 돈황현의 지현知縣이었던 진택陳澤의 지휘 하에 돈황의 모든 권자를 구매하여 관내로 옮기게 하였는데, 그 경통을 풀지 않은 채 고스란히 옮겼으며 진택陳澤이 직접 가서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전수가 총 6천 권에 이르렀고, 이를 북경으로 옮겨, 부립경사박물관部立京師博物館에 소장했다. 이를 전부 기록하니 8697개 항목으로 분류 되었다. 민국民國 18년에 북평도서관北平圖書館으로 옮겨와 목록을 정리했고, 훼손된 1192권을 추가하여 모두 9871항목이 되었다. 불경이 44여종이고, 예전에 실전되어버린 경전은 수십 권으로 이 모두가 귀중한 서적이

다. 진나라와 위나라의 서적은 수십 권으로 서법이 소박하고, 종이 질이 견고하며 특히 귀한 보물이다. 다른 경전들은 현재의 간행본과 차이가 많이 나서 교감(校勘)을 통해 고증해야 한다. 권자 종이 뒤 쪽에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장부, 계약서, 통속 가사들은 종전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자료들은 고대의 일들을 파악 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진원(陳垣) 「돈황첩여록(敦煌劫餘錄)」 서문 참고). 민국(民國) 18년 봄에 진원(陳垣)은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요청으로 8697권을 엮어 「돈황첩여록(敦煌劫餘錄)」을 펴냈다. 의녕(義寧) 진인각(陳寅恪) 선생이 서문을 썼고, 중국의 장경(藏經)들은 한 곳에 모아, 목록도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돈황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스타인이나 펠리오와 같은 제국주의 분자와 기타 발 빠른 이들이 그림과 각종 소장이나 물품, 아시아 고대 언어와 기타 고문으로 쓰인 경전들 절반 이상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99%가 불경뿐이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것들조차도 감숙(甘肅)에서 북경으로 옮기던 중 약삭빠른 이들이 가져가버렸다. 따라서 결국에 남아 있는 것은 중국내부와 외국의 약탈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잔여품들도 학술계의 유산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값진 것들이다. 민국(民國) 13년 여름에, 북경의 인사들이 모여 돈황 권자를 편집 및 보존하는 모임을 설립하고, 신문에 광고하여 목록들을 모집해서 총 목록을 편찬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

관내에서 북경으로 권자들을 옮길 때에도 다 옮기지 못했다. 아마도 왕 도사가 잔피를 부렸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스타인이 1924년에 돈황을 재차 방문했을 당시에도 왕 도사에게 500~600권의 권자를 얻어 갈수 있었던 것이다. 왕 도사가 ‘전경통(轉經桶)’이라 불리는 경전들을 교활하게 숨겨 놓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들통 났고, 선통(宣統) 3년과 민국(民國) 원년, 3년, 8년에 이 일의 진상을 조사 하였지만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굴 안에 여전히 경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었고, 게다가 신강(新疆) 일대에서는 누군가가 외국인들에게 이 물품들을 팔러 다니기도 했다. 그 물품 중에는 티베트 문자로 된 불경도 상당수가 있었다. 따라서 민국(民國) 8년에 감숙(甘肅)성의 교육청에서 돈황 지현(知縣)에게 ‘이 외국문자로 된 경전 권자들을 전부 성(省)으로 가져와서 성(省) 도서관에 보관하라’고 명했다. 이에 조사단을 돈황으로 파견해서 굴 문을 열어보니 남아 있는 외

국문자로 된 불경 권자들은 그 절 3층 건물 남쪽 2층 석굴에 봉해져 있었다. 그것을 세어 보니 94꾸러미였으며, 무게가 총 405근이었다. 협판을 된 꾸러미가 총 11개이었으며, 협판을 포함해서 총 1744근이 있었다. 석굴에 90꾸러미, 441.5근을 남기고, 그 외의 네 꾸러미와 협판 11꾸러미는 권학소勸學所로 옮겼다. 조사단은 한 꾸러미 4근, 협판 한 꾸러미 66근은 감숙도서관에 보관하고 나머지 3꾸러미 15.4근과 협판 열 꾸러미 1584근은 영구히 보관하였다. 이는 비교적 정밀한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돈황 권자는 전부 국가 기관으로 옮겨졌으며 왕 도사는 더 이상 보물을 팔 수 없게 되었고, 도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돈황 경전 권자를 중국 내에 소장하게 된 경위이다(하지만 民國國 삼십 몇 년에 어떤 사람이 돈황에 갔을 때, 1동에 있는 나무 궤에서 티베트 경전 수십 권을 볼 수 있었는데, 전부터 남겨진 것인지 밀봉된 것이 발굴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돈황의 보물을 약탈해간 후 일본제국주의의 문화 스파이도 절도 행위에 참여했다. 일본인 오타니大谷光瑞는 1902년부터 1904년까지 그의 제자 다치바나 즈이초橋瑞超와 함께 3차 탐험을 했는데, 그들은 알리사산맥 동쪽을 따라 고비 사막으로 들어왔다. 돈황과 타림분지, 투르판에서 불교 경전, 역사 자료, 서역의 언어로 된 책, 회화, 조각, 염직물, 고대의 화폐 등을 가져갔다. 그가 약탈해 간 불전은 진평 원강元康 6년의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서량西凉 초기의 「법화경法華經」·선도善導대사의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400여 권이었다. 그것들은 목록이 있고, 권자 순서가 상세히 기록되어있으며, 뒷부분에는 보은사報恩寺·정토사淨土寺·삼계사三界寺 라는 언급도 되어있다. 그 경문은 「이락총서二樂總書」에 들어 있다. 이 서적들은 불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진옥羅振玉은 그 목록들을 기록해서 간행한 적이 있다. 이는 오타니의 저서 「서역고고도보西域考古圖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다치바나 즈이초에 이어 요시카와 코이치로吉川小一郎도 백여 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목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편찬한 「대정대장경大正大藏經」에 이 불경자료들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것들과 함께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다.

독일 제국주의분자 알베르트 폰 르 콕(A von Le Coq)도 최악의 절도행렬에 참가했다. ‘고고학’이란 명분으로 신강新疆에 네 차례 들어와서 주로 미술품들을

가져갔으며, 「중아시아 미술 및 문화사 도집」을 써냈다(Bilderatlas zur Kunst und Kulturgeschichte Mittel-Asiens, Berlin, 1925).

가장 악랄한 약탈자는 미국제국주의자인 랭드 워너(L. Warner) 하버드 대학 포그 예술 박물관(Fogg Art Museum) 동방부 주임이다. 그는 1923년에 중국에 와서 당唐 대의 관음소상과 벽화를 훔쳐갔다. 이에 대해 상서홍常書鴻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24년(1924년을 1923년으로 해야 함)에 랭드 워너가 천불동에서 테이프를 사용해 떼어가면서 훼손시킨 당唐 초기의 석굴 벽화는 돈황문물연구소에 따르면 320, 321, 328, 329, 331, 335, 372호의 각 굴에서 26면 총 3만 2천6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 그가 훔쳐간 것들 중에는 당唐 초기의 석굴 벽화인 ‘장건출사서역도張蹇出使西域圖’와 같은 민족역사 및 중국 불교역사의 중요한 이야기와 관련된 벽화가 많다. 또한 328호 굴에 높이 120센티미터에 달하는 당唐대의 가장 아름다운 ‘반가좌관음채소상半跏坐觀音彩塑像’ 등도 있다. 이런 장물들은 현재 미국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포그 예술 박물관에 근거함). 「문물참고자료」 2권 1기에 왕손王遜과 부진륜傅振倫등의 세 편의 글에서 이 일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랭드 워너도 자백서에 해당하는 「중국의 옛 길에서」라는 책을 썼다.

(三) 돈황 한간漢簡의 발견

막고굴에서 발견된 경전은 막고莫高, 유림榆林, 서천불西千佛 굴 등의 소장 및 벽화만큼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이곳들은 모두 돈황의 남쪽이나 동쪽 일대에 있었으며 삼위산三危山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漢나라 이후 돈황이 서북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고고학 자료에서 보면 이 외의 다른 문물들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역시 아주 중요한 문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돈황 현縣 내에서 발굴된 것이며, 돈황 문물 최초의 약탈자인 스타인에 의해 발견된 것이기도 한 이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간漢簡이다.

원래 한漢대부터 종이가 발명되었지만, 변방 지역에서 종이를 사용한 시점은

비교적 늦은 시기였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문서는 모두 죽간竹簡이나 목독木牘 위에다 썼다. 따라서 서북지역 일대에서 고고학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간독簡牘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간독에는 한漢대의 것도 있고, 진晉대 이후의 것도 있다. 스타인이 돈황에서 발견하여 약탈해 간 것은 한漢대 변방 지역에 남겨진 것이므로 한간漢簡이라 부른다.

스타인이 서북지역에 두 번째 방문했을 당시, 돈황에 고대 문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따라서 신강新疆에서 동쪽방향에 있는 돈황을 가는 길에 옥문관玉門關에 들렀다. 그는 소륙疏勒강 - 돈황 북쪽의 하류 끝에서 3마일 떨어진 곳 -에서 망루 유적을 발견했고 저지대를 지나는 성벽도 발견했다. 그 성벽은 소륙강에서 동쪽으로 최소 16마일이 끊김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스타인은 그 성의 외형, 재질, 부근의 유물들을 살펴보고 그 성을 옛 장성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 성벽 꼭대기 짚더미에서 작은 비단 조각을 발견했고, 오채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비단 천 조각과 나무 조각 및 중국 글자로 ‘魯丁氏布一匹’라고 써진 나무 조각들도 얻게 되었다. 그는 이것들을 한漢대의 것들이라고 단정했다. 후에 그는 이 성벽을 조사했는데, 이 성벽은 어지나강까지 이어짐과 끊어짐을 반복하며 400마일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중국의 기록에 나오는 고대 장성과도 일치했다.

그는 망루에서 가까운 주거 유적지의 쓰레기 더미에서도 중국 글자로 된 목간木簡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그 위에는 연대가 쓰여 있는 것들도 많았다. 그 연대들은 모두 서기 1세기의 것들이었으며, 그 유적지는 전한前漢 시기에 이미 사람들이 점령했던 곳이었다. 이것들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후에 이 목간들의 내용은 스타인의 측근인 장蔣씨에 의해서 상세하게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군사 및 통치와 관련된 보고와 명령, 무기 보급과 관련된 보고서, 개인적인 편지, 학교 교재, 서법을 연습했던 종이 조각들로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

이런 잡다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가 어지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얇은 편지들의 일반적인 형태는 길이가 약 9인치 반이고, 그 중 4분의 1이 넓이가 반 인치이다. 매 항마다 30개 이상의 중국 글자가 쓰여 있었으며, 당시에 깔끔한 서법이 유행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한 재료를 보면, 반질반질하고 정교한 목편이나 죽편 외에도 현지에서 생산되었던 비교적 까칠까칠한 붉은

버드나무로 된 목편도 자주 보인다. 비공식적인 통신을 할 때 대충 잘라 글을 쓰기에 이런 재료가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지키는 사병들은 이렇게 소일하며 지냈음이 분명하다.

위의 목간은 마모된 흔적이 많은데, 이는 재료를 얻기 쉽지 않고 가격이 비싼 관계로 재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막을 둘러싼 곳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있었던 곳의 쓰레기 더미에서도 잡다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 목간들을 판독한 결과 장병들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러 형역으로 그곳까지 가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만리장성 서쪽 끝을 방위했던 망루 근처에서 글이 써진 큰 목간을 발견했는데, 대시太始 3년(기원전 94년)이란 연호가 쓰여 있었다. 목간 내용에 의하면 그곳의 이름은 ‘대전부大煎部’라고 한다. 이 밖에 대시太始 원년의 것도 있다. 스타인은 모든 망루에서 유물을 얻었지만, 특히 만리장성 뒤쪽 2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역(驛)에서 제일 많이 얻었다. 그 역 안에서 얻은 목간은 관리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그 중 하나는 선제宣帝 지절地節 2년(기원전 68년) 5월 10일의 것이다.

겨우 1방리方里 범위 내의 유적지 쓰레기 더미에서 글자가 있는 목간 300개 이상을 얻은 것이다. 당연히 이것들은 하급 관리의 문서들로, 선제宣帝 원강元康 원년부터 오봉五鳳 2년(기원전 65년부터 56년까지) 사이의 것들이다. 이 문서들 중 어떤 것은 둔황 지대에 둔전을 만들라거나, 정자나 성벽을 만들어 방어 하라는 지시를 다시 기록하거나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도 있다. 이 외에 장성을 따라 있었던 군대들의 조직과 각기 다른 부대명이 적힌 것도 있고, 장성 및 기타 각 지역, 각 봉수대와 관련한 보고서와 명령도 있다. 어떤 목간에서는 ‘사관士官’이란 명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병사 국적 가운데는 중국인이 아닌 용병도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위임장으로 쓰이던 것도 있는데, 고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사이에 통용되던 고대 솔리어로 된 목간이다. 원강元康 3년(기원전 63년), 신작神爵 3년(기원전 59년), 오봉五鳳 원년(기원전 57년)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번역서들도 많으며, 중국의 유명한 소학서인 「급취장急就章」도 있다.

고대 옥문관 동쪽에서 5마일쯤 떨어진 유적지의 성벽 모퉁이에서 목간더미가 발견되었는데, 그 목간들은 식량이나 의복과 같은 물품들을 둔황 사막에서 운송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몇백 건의 목간에 대한 설명은 스타인의 「서역고고도기西域考古圖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목간위의 문구에 대한 해석과 이와 관련된 역사 및 지리에 대한 고증은 1913년 런던에서 발행된 프랑스의 한漢학자 샤반느 박사의 「고석考釋」에 실려 있다(샤반느의 죽간 해석은 스타인의 첫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됨. “Ancient Khotan”, pp. 521-547, Appendix A. - Chinese Document from The Sites of Dandan Uiliq, Niya and Endra, translated and annotated by Ed. Chavannes). 왕국유王國維와 나진옥羅振玉은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유사추간流沙墜簡」을 편찬했다.

스타인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이런 목간외의 다른 고대 유물들도 얻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1. 최초의 종이

스타인은 만리장성의 방치된 봉수대의 먼지 더미 속에서 고대 솔리문자로 쓰인 종이가 된 편지 여덟 통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상태가 아주 깨끗했으며 비단으로 포장된 것들도 있고, 끈으로 묶인 것들도 있었다. 이것들은 중앙아시아 일대의 상인들이 중국에 온 후 고국으로 보낸 개인적인 서찰이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고수하던 목간을 사용하기보다 새로 발명된 종이를 사용하길 원했다.

2. 비단

봉수대 유적지에서 고대의 비단도 발견했는데, 그 비단에는 한자와 브라만 문자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고대에 비단무역을 했었다는 희귀한 자료인데, 비단 위에는 생산지와 각 비단 한 필의 중량이 적혀있다.

3. 각종의 군용 물품

그는 봉수대 유적지에서 묶여진 작은 상자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화살 깃이 망가진 화살과 동으로 된 화살촉 하나가 문서와 함께 담겨있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근대의 군사 전문용어와 당시 공문을 섞어 말하자면 ‘부러진 활을 창고로 반납하고 새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고대 만리장성에서 얻은 문서들 중에는 새로운 석궁으로 바꾸는 내용과 훼손된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아주 많다. 그는 또

한 만리장성 성벽과 봉수대 근처에서 청동 화살촉을 많이 주웠다. 상자 위쪽에 목간도 있었는데, 목간에는 ‘玉門顯明燧蠻兵銅鏃百完’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밖에 작은 상자도 하나 있었는데, 그 상자 뚜껑에는 ‘顯明燧葯函’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군용 약상자로 고대 시기 행군할 때 썼던 약으로 보인다.

4. 기타 물품들

그는 측량기구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발 치수를 재는 자와 같은 모양으로 위에는 한·漢대의 척도尺度가 새겨져있었다. 또한 나무로 된 도장함도 있었는데, 위에는 홈이 파여져 있어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밖의 물품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다 쓸 수는 없다.

이런 목간과 기타 물품들은 소재지가 전부 돈황이다. 시기는 위·魏, 진·晉, 육조六朝까지 이르는 시기로 동일한 유형의 문화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당연히 ‘돈황학’의 범위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한·漢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며, 육조六朝 이후 문화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특별히 그것들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상의 막고굴莫高窟, 유림榆林, 서천불사西千佛寺등의 조형예술과 151호 굴의 경전사본, 그리고 고대 만리장성 일대의 목간과 죽간들을 종합해보면, 이것들은 모두 보물이며, 이 보물들로 ‘돈황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보물들은 풍부하고 빛나는 것들로, 북 중국에서 이천 년간 발전해 온 문화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북 민족 더 나아가 인도와 유럽 민족과의 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서역의 교류 상황과 문화 전파의 대략적인 상황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선조의 휘황찬란한 예술문화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변화시키는 능력도 보여준다. 또한 그 민족의 모든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창조, 예술, 종교, 철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우리 민족의 앞선 업적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 보물들의 창조와 발견은 전 인류의 행복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점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만하다. 또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

산이다. 우리는 돈황의 초석을 다지고, 빛나는 사회를 건설해야한다. 돈황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국주의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받은 열등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민족의 자신감을 되찾아야한다. 돈황의 모든 고전 문화는 우리가 깊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